

2013 이슈분석-02

서울시 4050 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변은지

SFWF



서울시여성가족재단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Contents

I 서론 _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3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4

II 서울시 4050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및 생활실태 _ 9

- 1. 서울시 4050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11
 - 1) 서울시 4050 여성 인구규모 11
 - 2) 서울시 4050 여성의 혼인상태 12
 - 3) 서울시 4050 여성 가구주 분포 12
 - 4) 서울시 4050 여성의 가사분담상태 15
 - 5) 서울시 4050 여성의 경제활동 16
- 2. 서울시 4050 여성의 생활실태 19
 - 1) 주요 하루 일과 19
 - 2) 개인적 어려움 22
 - 3) 자녀 양육 측면의 부담 요인 24
 - 4) 부모 부양 측면의 부담 요인 26
 - 5) 40세 이후 구직경험 및 구직활동 시 장애요인 28

Ⅲ 서울시 4050 여성의 정책 인식 및 수요 _ 33

1. 서울시 4050 여성의 서울시정 인식 및 수요	35
1) 시정운영 평가	35
2) 서울시 긍정평가 사업 분야	37
3) 향후 더 집중해야 할 사업 분야	39
2. 서울시 4050 여성의 여성정책 인식 및 수요	42
1) 서울시 추진 여성정책 중 기억나는 정책 분야	42
2) 향후 여성정책 관심 역점 분야	45
3) 향후 여성안전정책 관심 역점 분야	47
4) 현 시장의 여성정책 관심도	49

Ⅳ 정책적 함의 _ 53

참고문헌 _ 61

부 록 _ 63

1. 설문지	65
2. 설문 결과표	70

표 목차

Ⅰ 표 I-1	조사 개요	6
Ⅰ 표 I-2	조사 응답자 특성	7
Ⅱ 표 II-1	연령별 서울시 인구 분포(2012)	11
Ⅱ 표 II-2	서울시 4050 여성의 혼인상태(2010)	12
Ⅱ 표 II-3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 가구 분포(2010)	13
Ⅱ 표 II-4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인구 분포(2012)	16
Ⅱ 표 II-5	연령별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현황(2012)	18
Ⅱ 표 II-6	서울시 4050 여성의 생활실태 요약	32
Ⅲ 표 III-1	서울시 4050 여성 정책 인식 및 수요 요약	51

그림 목차

■ 그림 II-1 ■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 가구 분포(2010)	14
■ 그림 II-2 ■ 가구주의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가구 분포(2010)	14
■ 그림 II-3 ■ 연령별 가사분담상태(2012)	15
■ 그림 II-4 ■ 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17
■ 그림 II-5 ■ 연령 및 성별 취업자 비중	17
■ 그림 II-6 ■ 종사상 지위, 연령 및 성별 취업인구 비중(2012)	19
■ 그림 II-7 ■ 주요 하루 일과 (%)	20
■ 그림 II-8 ■ 연령별 주요 하루 일과 (%)	21
■ 그림 II-9 ■ 경제활동 유형별 주요 하루 일과 (%)	21
■ 그림 II-10 ■ 개인적 어려움 (%)	23
■ 그림 II-11 ■ 연령별 개인적 어려움 (1순위, %)	23
■ 그림 II-12 ■ 가장 부담이 되는 자녀 양육 측면 (%)	25
■ 그림 II-13 ■ 연령별 가장 부담이 되는 자녀 양육 측면 (%)	25
■ 그림 II-14 ■ 가장 부담이 되는 부모 부양 측면 (%)	27
■ 그림 II-15 ■ 연령별 가장 부담이 되는 부모 부양 측면 (%)	27
■ 그림 II-16 ■ 가구소득 수준별 가장 부담이 되는 부모 부양 측면 (%)	28
■ 그림 II-17 ■ 40세 이후 구직 경험 (%)	29
■ 그림 II-18 ■ 연령별 40세 이후 구직 경험 (%)	29
■ 그림 II-19 ■ 경제활동 유형별 40세 이후 구직 경험 (%)	30
■ 그림 II-20 ■ 40세 이후 구직활동시 어려움 (%)	31
■ 그림 II-21 ■ 연령별 40세 이후 구직활동시 어려움 (%)	31
■ 그림 II-22 ■ 경제활동 유형별 40세 이후 구직활동시 어려움 (%)	32
■ 그림 III-1 ■ 시정운영 평가 (%)	35
■ 그림 III-2 ■ 연령별 시정운영 평가 (%)	36
■ 그림 III-3 ■ 경제활동 유형별 시정운영 평가	36
■ 그림 III-4 ■ 가구소득 수준별 시정운영 평가 (%)	36
■ 그림 III-5 ■ 가장 잘되고 있는 서울시 사업 (%)	38
■ 그림 III-6 ■ 연령별 가장 잘되고 있는 서울시 사업 (%)	38
■ 그림 III-7 ■ 가구소득 수준별 가장 잘되고 있는 서울시 사업 (%)	39
■ 그림 III-8 ■ 향후 더 집중해야 할 사업분야 (%)	40
■ 그림 III-9 ■ 연령별 향후 더 집중해야 할 사업분야 (%)	41

■ 그림 III-10 ■	경제활동 유형별 향후 더 집중해야 할 사업분야 (%)	41
■ 그림 III-11 ■	가구소득 수준별 향후 더 집중해야 할 사업분야 (%)	42
■ 그림 III-12 ■	서울시 추진 여성정책 중 기억나는 정책분야 (%)	43
■ 그림 III-13 ■	연령별 서울시 추진 여성정책 중 기억나는 정책분야 (%)	44
■ 그림 III-14 ■	가구소득 수준별 서울시 추진 여성정책 중 기억나는 정책분야 (%) ...	44
■ 그림 III-15 ■	향후 여성정책 관심 역점 분야 (%)	46
■ 그림 III-16 ■	연령별 향후 여성정책 관심 역점 분야(1순위, %)	46
■ 그림 III-17 ■	경제활동 유형별 향후 여성정책 관심 역점 분야(1순위, %)	47
■ 그림 III-18 ■	향후 여성안전정책 관심 역점 분야 (%)	48
■ 그림 III-19 ■	연령별 향후 여성안전정책 관심 역점 분야 (%)	48
■ 그림 III-20 ■	현 시장의 여성정책 관심도 (%)	50
■ 그림 III-21 ■	연령별 현 시장의 여성정책 관심도 (%)	50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1. 연구배경 및 목적

○ 생애주기별 여성정책 마련 필요

- 여성과 관련된 환경이 변화되고 여성문제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여성의제들이 정책으로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러한 여성정책의 변화 혹은 발전에 더하여 최근에는 여성들의 삶을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하여 여성의 삶을 보다 밀착적이고 현실감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장미혜 외, 2012).
- 이에 최근 여성연구에서 2030 여성, 3040 여성, 베이비붐세대 여성, 폐경기 여성 등 특정 세대나 코호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서울시 4050 여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재함.
-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4050 여성의 규모는 약 168만명으로 서울시 인구의 16%가 넘으며, 서울시 여성인구의 32% 가량을 차지함. 이들의 삶의 양상과 고충, 다음 생애주기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사회적 지원 욕구 등을 파악하여 4050세대 여성에 맞는 현실감 있는 지원정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함.

○ 정책 대상으로서 4050 여성 주목 필요

- 4050세대는 ‘깁 세대’, ‘샌드위치 세대’로 인식되면서 생애주기상 가장 과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세대임. 특히 4050 여성은 가정 내에서 가사와 자녀양육, 부

모부양의 책임을 전담하다시피 해왔음.

- 최근에는 실직, 조기퇴직으로 인한 일자리 불안 악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의 증가, 사교육비 증대, 자녀양육 및 노후기간 장기화 등의 위험요인까지 더해져 4050세대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 이에 수많은 4050 여성들이 취업 전선에 내몰리면서 경제활동의 책임까지 지고 있는 상황임.
- 이렇듯 과중한 책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4050 여성들은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함. 정부에서 생애주기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로 영유아 대상 보육정책과 청소년정책, 노인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또한 여성정책 내에서도 4050 여성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비중을 차지한 채, 4050 여성 정책은 경력단절 취업지원, 중년기 가족위기 예방 지원, 폐경기 중년여성 건강관리 지원 등에 불과함(고지영 외, 2011).
- 다양한 사회적·가족적 위험요인들에 노출되면서 가사와 가족돌봄뿐 아니라 다른 책임들까지 가중되고 있는 4050 여성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4050 여성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주목하고, 4050 여성이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재 및 노후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과 노력이 필요함.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연구내용

○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3가지임.

- 첫째, 기존 조사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서울시 4050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현황과 추이, 다른 세대 여성 및 남성과의 차이점 등을 파악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 주목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4050 여성의 인구 규모 현황, 4050 여성의 혼인상태 및 가구주 분포, 4050 여성의 가사분담상태 및 경제활동 현황 등임.
-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의 자료분석을 통해 서울시 4050 여성의 생활실태와 정책인식 및 수요를 분석하고자 함. 생활실태로는 주된 일과, 개인적

고충, 부모부양 및 자녀양육의 부담요인, 40세 이후 구직 시 장애요인을 조사하여 분석함. 정책인식 및 수요로는 서울시정 인식, 서울시 여성정책 인식 및 수요에 대해 조사하여 4050 여성 전체 및 세분집단(연령, 취업여부 등)에 따른 비교분석을 시도함. 이를 통해 서울시 거주 4050 여성의 삶의 양상과 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자 함.

- 셋째, 앞선 분석결과를 토대로 4050 여성 지원을 위한 서울시의 우선 지원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연구방법

○ 본 연구의 주요 방법은 다음의 2가지임.

- 첫째, 우선 서울시 4050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조사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인구조사자료, 지역별고용조사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자료 등을 분석에 활용함.
- 둘째, 본 연구에서는 4050 여성의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를 위해 전화설문 조사를 시행하였고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4050 여성의 지원정책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 본 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40-50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4050 여성의 생활실태, 시정 관련 인식, 여성정책에 관한 인식 및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서울시의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서울시 4050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본 조사의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음. 조사대상은 서울시 만 40~59세 여성으로 대상으로 지역별,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에 의해 추출됨.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가 2014년 12월 6일(금)~7일(토)까지 조사전문업체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최종 유효표본은 400명이었음(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pm 4.9\%$).

【표 I-1】 조사 개요

조사 제목	- 서울시 4050 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조사 기간	- 2013년 12월 6일 ~ 7일
조사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40~50대 여성 400명
표본추출방법	- 지역,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추출
유효 표본	- 총 400명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4.9%)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실태: 하루 일과의 비중, 개인적 어려움, 부모 부양 측면의 부담 요인, 자녀양육 측면의 부담 요인, 40세 이후 구직활동 시 장애요인 - 시정인식: 시정운영 평가, 서울시 긍정평가 사업 분야, 향후 더 집중해야 할 사업분야 - 여성정책 인식 및 수요: 서울시 추진 여성정책 중 기억나는 정책분야, 향후 여성정책 관심 역점분야, 여성안전 관련 우선 정책, 시장의 여성정책 관심도

표 I-2 |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전체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400)	100.0
연령		
40세-44세	(108)	27.0
45세-49세	(97)	24.3
50세-54세	(104)	26.0
55세-59세	(91)	22.8
권역별		
도심권	(21)	5.3
동북권	(128)	32.0
서북권	(46)	11.5
서남권	(118)	29.5
동남권	(87)	21.8
경제활동형태별		
경제활동_정기적	(98)	24.5
경제활동_파트타임	(110)	27.5
비경제활동	(192)	48.0
혼인상태별		
기혼_유배우자	(335)	83.8
기혼_무배우자	(31)	7.8
미혼	(34)	8.5
소득별		
300만원대 이하	(155)	38.8
400-500만원대	(133)	33.3
600만원대 이상	(98)	24.5
무응답	(14)	3.5
학력별		
중졸이하	(29)	7.2
고졸	(106)	26.5
대졸이상	(265)	66.3

II

서울시 4050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및 생활실태

1. 서울시 4050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2. 서울시 4050 여성의 생활실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

서울시 4050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및 생활실태

II

1. 서울시 4050 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1) 서울시 4050 여성 인구규모

서울시 4050 여성인구 약 168만명
서울시 인구의 약 16%, 서울시 여성인구의 약 32% 차지

- 2012년 현재 서울시 4050 여성인구 규모는 약 168만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16.4%, 서울시 여성인구의 32.5%를 차지하고 있음. 전국 4050 여성의 20% 가량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정책 대상으로서 서울시 4050 여성이 상당한 비중을 나타냄.

표 II-1 | 연령별 서울시 인구 분포(2012)

(단위: 명, %)

	전체		여성		남성	
계	10,195,318	100.0	5,153,982	100.0	5,041,336	100.0
10대 이하	1,972,496	19.3	948,358	18.4	1,024,138	20.3
20대	1,488,944	14.6	745,963	14.4	742,981	14.7
30대	1,802,242	17.7	891,984	17.6	910,258	18.1

	전체		여성		남성	
40대	1,735,779	17.0	865,091	16.7	870,688	17.3
50대	1,576,336	15.5	812,455	15.7	763,881	15.2
60대	915,732	9.0	476,794	9.3	438,938	8.7
70대	520,039	5.1	285,892	5.5	234,147	4.6
80대 이상	183,750	1.8	127,445	2.4	56,305	1.1

자료 : 통계청(2012), 「주민등록인구통계」, DB 웹서비스, 서울시 자료 발췌

2) 서울시 4050 여성의 혼인상태

**서울시 4050 여성인구 10명 중 8명은 배우자가 있고,
1명은 이혼, 나머지 1명이 미혼 혹은 사별**

○ 2010년 현재 4050 여성의 79.9%가 배우자가 있으며, 9.2% 정도는 이혼 상태에 있으며, 미혼과 사별이 각각 5.2%, 5.7%로 나타남. 즉, 서울시 4050 여성 10명 중 8명이 배우자가 있고 1명은 이혼, 나머지 1명이 미혼이거나 사별인 것으로 분석됨.

【표 II-2】 서울시 4050 여성의 혼인상태(2010)

(단위:명, %)

전체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명	%	명	%	명	%	명	%	명	%
1,525,364	100.0	80,083	5.2	1,218,878	79.9	86,785	5.7	139,673	9.2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총조사」

3) 서울시 4050 여성 가구주 분포

**서울시 4050 여성 가구주 서울시 가구주의 약 10%
서울시 여성 가구주의 약 38% 차지
다른 연령대에 비해 4050 여성 가구주의 유배우자 및 이혼 비중 높음**



○ 다음은 연령 및 성별 가구주 분포를 나타냄. 2010년 현재 4050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는 375,459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10.7%, 여성 가구주 가구 대비 3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남성의 경우 30~50대에 가구주인 비중이 높은 반면, 여성은 20대 비혼 1인 가구 증가로 20대부터 가구주 비중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50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혼인 경우였던 반면,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미혼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사별이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23% 가량 되었음. 한편, 4050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여성 가구주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었음. 즉, 다른 연령대의 여성보다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와 이혼으로 인해 여성이 가구주가 된 비중이 높고, 반면 미혼이거나 사별로 인한 여성 가구주 비중은 낮은 것으로 분석됨.

【 표 II-3 】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 가구 분포(2010)

(단위: 가구, %)

	전체		여성		남성		전체 대비 여성 비율
계	3,504,297	100.0	984,950	100.0	2,519,347	100.0	28.1
10대 이하	11,815	0.3	6,494	0.7	5,321	0.2	55.0
20대	345,886	9.9	176,083	17.9	169,803	6.7	50.9
30대	725,678	20.7	175,033	17.8	550,645	21.9	24.1
40대	843,730	24.1	187,841	19.1	655,889	26.0	22.3
50대	776,080	22.1	187,618	19.0	588,462	23.4	24.2
60대	490,690	14.0	129,674	13.2	361,016	14.3	26.4
70대	248,751	7.1	90,822	9.2	157,929	6.3	36.5
80대 이상	61,667	1.8	31,385	3.2	30,282	1.2	50.9

주: 미상 제외

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DB 웹서비스, 서울시 자료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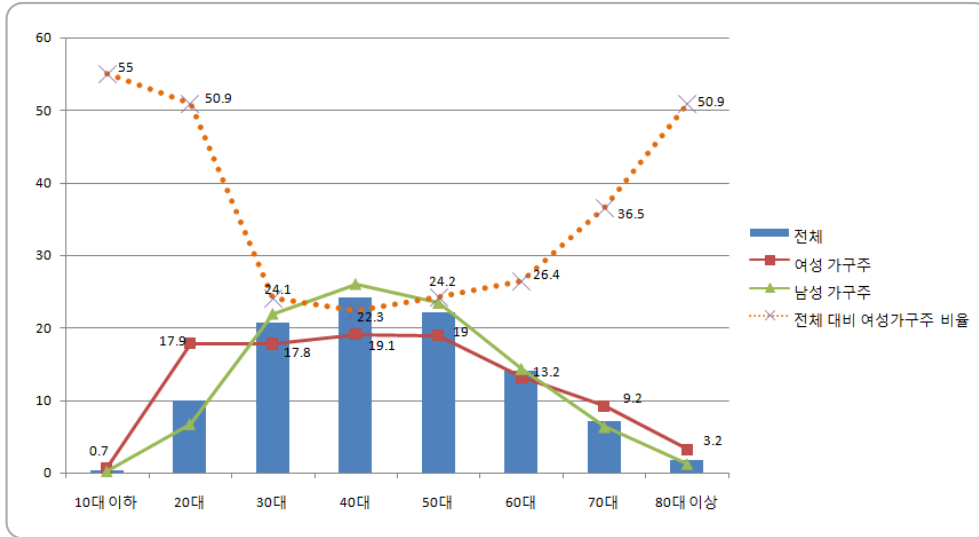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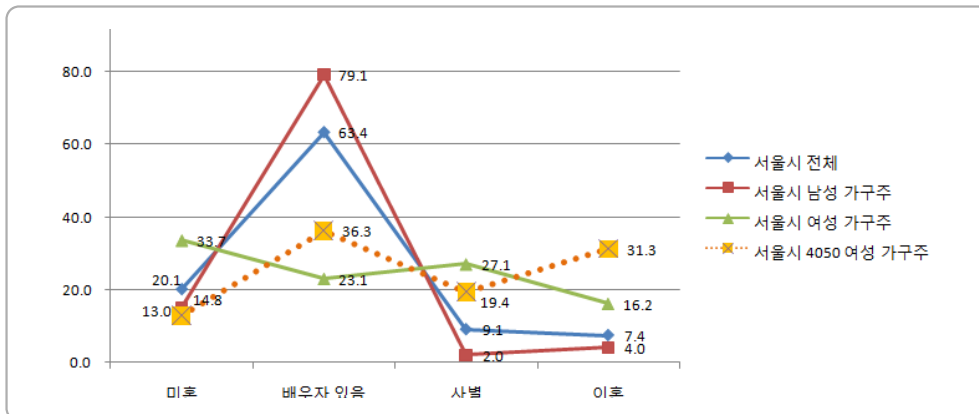


그림 II-1 | 가구주의 연령 및 성별 가구 분포(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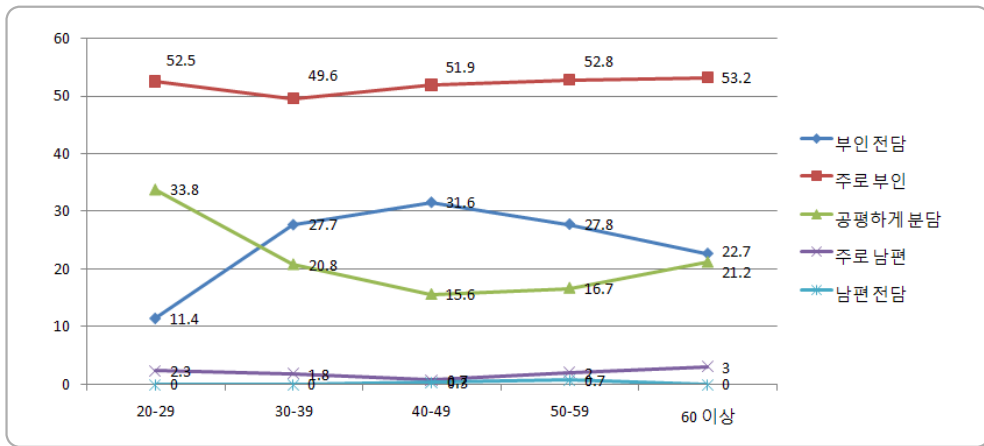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0), 「인구총조사」

그림 II-2 | 가구주의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가구 분포(2010)

4) 서울시 4050 여성의 가사분담상태

서울시 4050 기혼여성 10명 중 8명 가사 주책임자
 가족내 여성의 가사분담 비중 다른 연령대보다 큼

○ 가족내 가사분담상태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 40대 기혼여성 중 83.5%, 50대 기혼여성 중 80.6% 가량이 가사를 전담 혹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다른 연령대보다도 높은 비중으로서, 가사활동에 있어 4050 여성이 가장 과중한 책임을 맡고 있음을 나타냄. 특히 40대는 부인이 전담하는 비중이 가장 높고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중은 가장 낮아, 가족내 가사분담이 40대에서 가장 성불평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40대는 자녀 양육의 책임 역시 여성에게 가중되는 시기로, 40대 여성의 가족돌봄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임.



자료: 통계청(2012),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서울시 자료

■ 그림 II -3 ■ 연령별 가사분담상태(2012)

5) 서울시 4050 여성의 경제활동

서울시 4050 여성 10명 중 6명 취업 혹은 구직 중
4050 여성 고용 안정성, 남성뿐 아니라 2030 여성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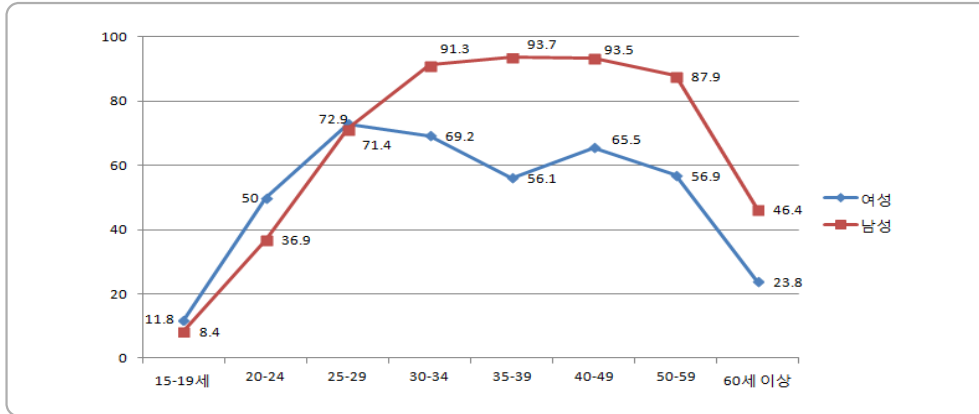
○ 서울시 4050 여성 중 61.3%인 약 995천명이 경제활동이 참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 경제활동인구의 19.1%, 서울시 여성경제활동 인구의 44.0%에 해당함.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30~40대를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50대 이후 낮아지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학업을 마친 직후 취업을 하는 20대 후반을 정점으로 증가하다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30대에는 감소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며, 40대에 다시 증가하는 M자형을 보이고 있음.

표 II -4 |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인구 분포(2012)

(단위: 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인구		취업률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15~19세	289	309	34	26	11.8	8.4	32	24	94.1	92.3
20~24세	346	260	173	96	50.0	36.9	157	81	90.8	84.4
25~29세	431	423	314	302	72.9	71.4	302	279	96.2	92.4
30~34세	777	683	487	421	69.2	91.3	303	401	96.8	95.2
35~39세	452	461	313	374	56.1	93.7	222	363	98.7	97.1
40~49세	401	817	549	764	65.5	93.5	539	745	98.2	97.5
50~59세	784	735	446	646	56.9	87.9	437	631	98.0	97.7
60세 이상	860	688	205	319	23.8	46.4	201	311	98.0	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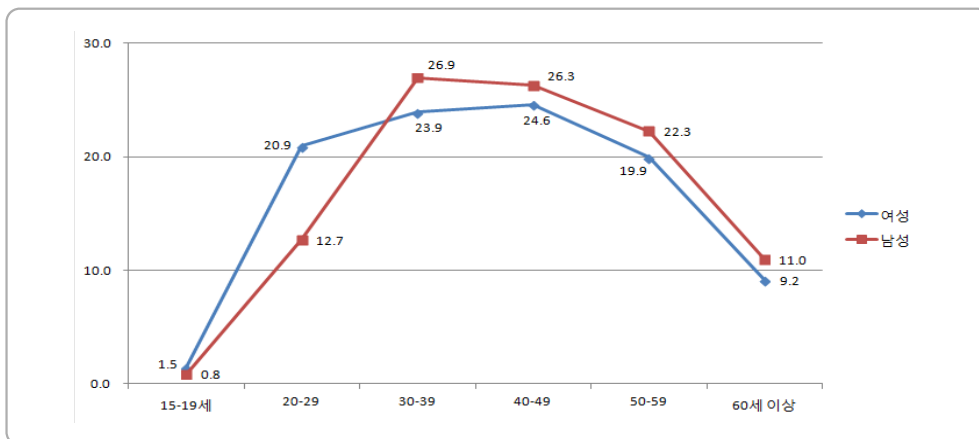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2), 「지역별고용조사」 (2012 4분기), 마이크로데이터 서울시 자료 분석



자료 : 통계청(2012), 「지역별고용조사」 (2012 4분기), 마이크로데이터 서울시 자료 분석

그림 II-4 | 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서울시 4050 여성취업자 수는 976천명으로 서울시 취업인구의 19.5%, 서울시 여성취업인구의 44.5%에 해당함. 남성의 경우 30대 취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40대가 24.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주: 취업자는 15세 이상 인구중 조사대상기간(15일이 포함된 1주간)에 ①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②같은 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체나 농장의 수입을 위해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한 사람(무급가족종사자), ③직업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일시적 병, 사고, 연·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하였으나 이들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일할 수 있는 사람(일시휴직자)을 포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통계청(2012),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서울시 자료 분석

그림 II-5 | 연령 및 성별 취업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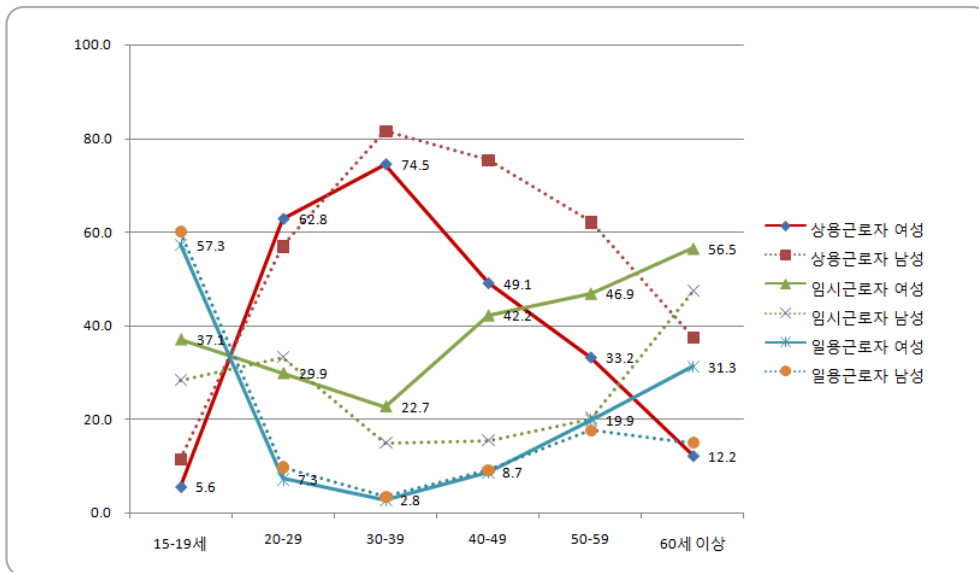
○ 4050 여성의 고용 안정성은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뿐 아니라 2030 여성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에 상용근로자 비중이 정점을 달하다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비중이 줄어듦.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상용근로자 비중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남성은 60대 이후에 들어 비로소 상용근로자보다 임시근로자 비중이 커지는 반면, 여성은 50대부터 이미 상용근로자보다 임시근로자 비중이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됨. 이미 40대에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간 비중 격차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은 4050세대에 들면서 고용이 급격히 불안정해짐을 나타냄. 4050 여성의 고용 불안은 2030 여성에 비해서도 심한 것으로 나타남. 여성취업인구 중 2030세대와 4050세대의 비중이 각각 44.9%, 44.5%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4050 여성이 2030 여성에 비해 고용안정에 있어 더욱 열세인 것으로 분석됨. 4050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신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4050 여성의 고용 불안정성이 증대됨을 나타냄.

표 II-5 | 연령별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현황(2012)

(단위: 명, %)

	전체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비율
15~19세	32,409	23,409	58.1	1,812	2,704	40.1	12,019	6,654	64.4	18,578	14,051	56.9
20~29세	436,739	334,655	56.6	274,352	190,796	59.0	130,453	111,417	53.9	31,934	32,442	49.6
30~39세	449,938	661,547	40.5	335,036	539,557	38.3	102,256	99,078	50.8	12,646	22,912	35.6
40~49세	406,961	546,685	42.7	199,783	412,615	32.6	171,808	84,762	67.0	35,370	49,308	41.8
50~59세	316,417	405,238	43.8	105,152	251,991	29.4	148,305	81,918	64.4	62,960	71,329	46.9
60세 이상	141,606	186,962	43.1	17,294	70,320	19.7	80,027	88,725	47.4	44,285	27,917	61.3
계	1,784,070	2,158,496	58.1	933,429	1,467,983	38.9	644,868	472,554	57.7	205,773	217,959	48.6

자료 : 통계청(2012), 「지역별고용조사」(2012 4분기), 마이크로데이터 서울시 자료 분석



자료 : 통계청(2012), 「지역별고용조사」 (2012 4분기), 마이크로데이터 서울시 자료 분석

Ⅱ-6 | 종사상 지위, 연령 및 성별 취업인구 비중(2012)

2. 서울시 4050 여성의 생활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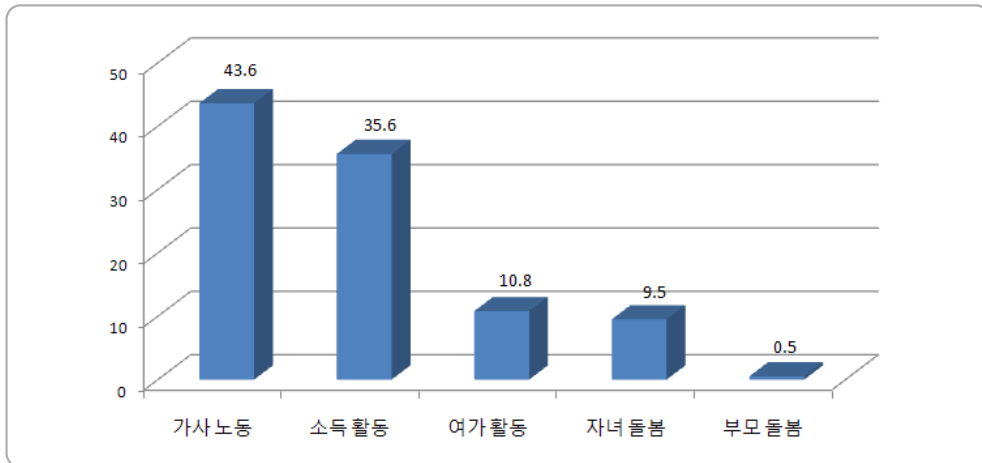
1) 주요 하루 일과

주로 ‘가사노동’ 혹은 ‘소득활동’을 하면서 하루를 보냄

○ 서울시 4050 여성 가운데 하루 일과 중 ‘가사노동’(43.6%)과 ‘소득활동’(35.6%)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여가활동’(10.8%), ‘자녀돌봄’(9.5%)이 그 뒤를 이었음. 연령별로 보면, 40대 여성의 경우 소득활동 중심인 경우가 45.4%로 가사노동 중심인 경우보다 높았던 반면, 50대 여성은 반 이상(55.2%)이 하루 일과에서 가사노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가사노동 및 소득활동 외에 40대는 자녀돌봄에, 그리고 50대는 여가활동에 치중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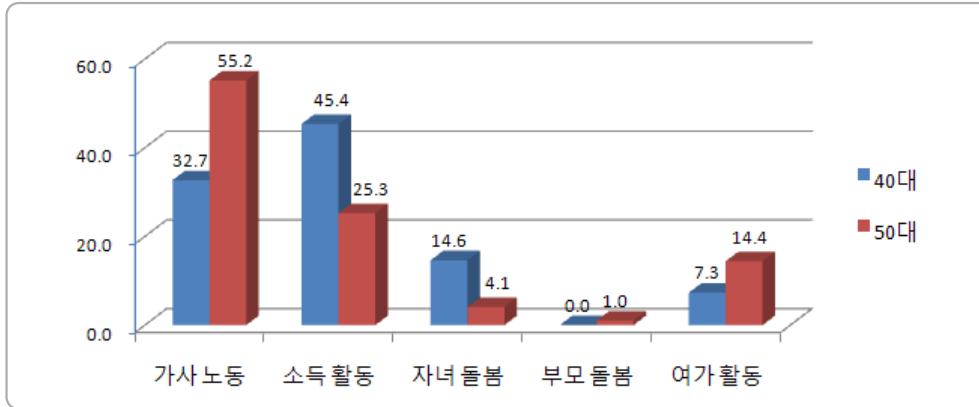
는 것으로 나타남. 무엇보다 취업여부가 4050 여성의 하루 일과를 가르는 중요 척도인 것으로 나타남. 정기적 경제활동 여성의 경우는 100% 소득활동 중심인 반면, 비경제활동 여성은 가사노동 중심이 70.7%로 다수를 차지함. 한편, 파트타임 경제활동 여성은 소득활동 중심 일과(40.0%)와 가사노동 중심 일과(39.0%)로 거의 양분되는 양태로 나타남.

- 주요 응답별로 보면, ‘가사노동’은 50대와 비경제활동층, 고졸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소득활동’은 40대와 경제활동층, 파트타임, 미혼, 대졸 이상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됨. ☞ 부록 표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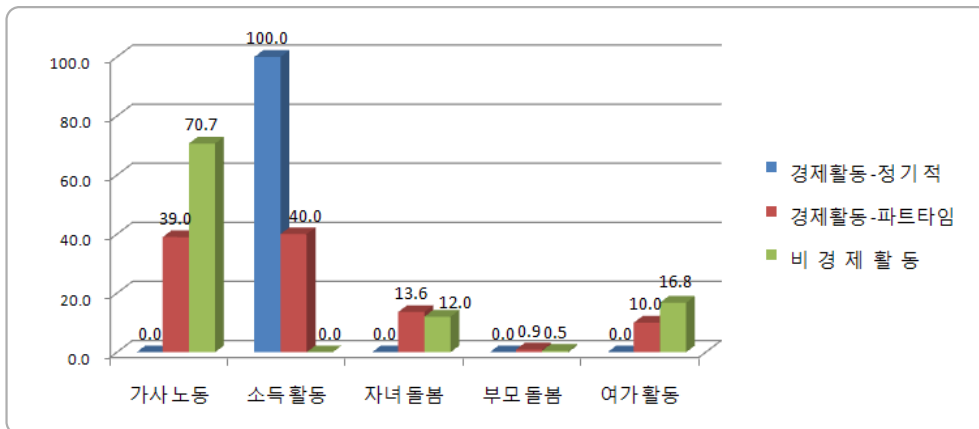
주: n=399명, '잘 모름'·'무응답' 제외

■ 그림 II-7 ■ 주요 하루 일과 (%)



주: n=399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II-8】 연령별 주요 하루 일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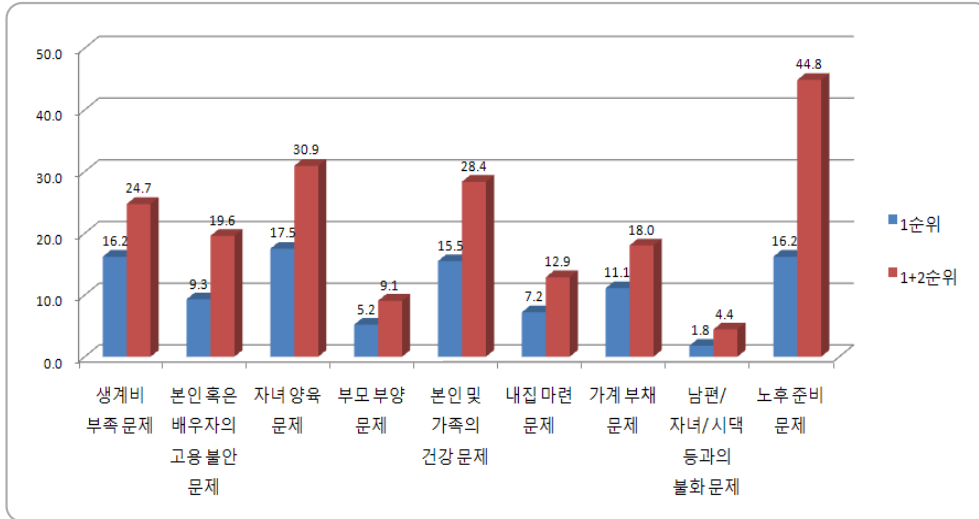
주: n=399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II-9】 경제활동 유형별 주요 하루 일과 (%)

2) 개인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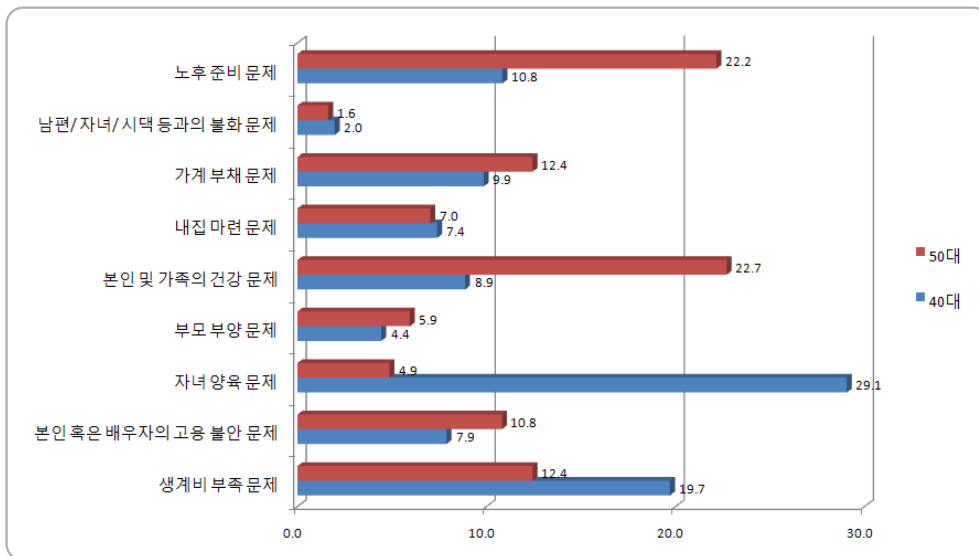
‘노후준비’와 ‘자녀양육’이 현재 가장 큰 고민지점

- 서울시 4050 여성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순위 어려움에서 ‘자녀양육 문제’가 가장 크다고 답하였고, 그 다음이 ‘노후준비’와 ‘생계비 부족’(각각 16.2%), ‘본인 및 가족의 건강’(15.5%) 순이었음. 한편, 1순위와 2순위 어려움을 합할 경우 순위의 양상이 달라지는데, 응답자의 44.8%가 ‘노후준비 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자녀양육’(30.9%), ‘건강문제’(28.4%), ‘생계비 부족 문제’(24.7%) 순이었음. 즉, 연령별로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를 수 있으나, 4050 여성에 있어 노후준비의 문제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상당한 고민거리임을 나타냄.
- 연령별로 개인적 어려움(1순위)을 보면, 40대는 ‘자녀양육 문제’와 ‘생계비 부족 문제’, 50대는 ‘노후의 준비 문제’와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문제’가 고민인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고민지점이 다른 것으로 나타남. 40대의 경우 사교육비, 등록금 등 자녀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고 그 외 각종 생활비 지출이 많아지는 경제적인 압박이 큰 것으로 이해됨. 반면, 50대의 경우 본인 혹은 배우자의 은퇴시점에 임박하여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보이며, 특히 50대 전반 여성에서 노후준비 문제와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50대는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감소, 대사질환, 갱년기, 우울 등 건강 상의 변화가 체감되는 시기로 건강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임.
- 개인적 어려움(1순위+2순위)의 주요 응답별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노후준비’ 응답은 50대, 기혼 무배우자, 미혼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녀양육’ 응답은 40대, 기혼 유배우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본인 및 가족의 건강’ 응답은 50대, 고소득자(가구소득 600만원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생계비 부족’ 응답은 미혼, 기혼 무배우자, 저소득자(소득 300만원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부록 표3** | 참조



주: n=388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중복응답

■ 그림 II -10 ■ 개인적 어려움 (%)



주: n=40대 203명, 50대 185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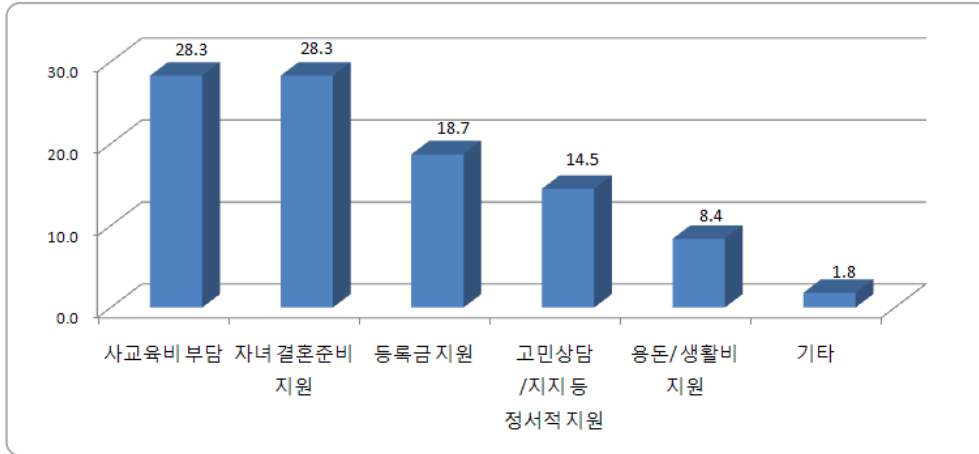
■ 그림 II -11 ■ 연령별 개인적 어려움 (1순위, %)

3) 자녀 양육 측면의 부담 요인

자녀 양육 시 최대 부담요인은 ‘사교육비 부담’과 ‘자녀의 결혼준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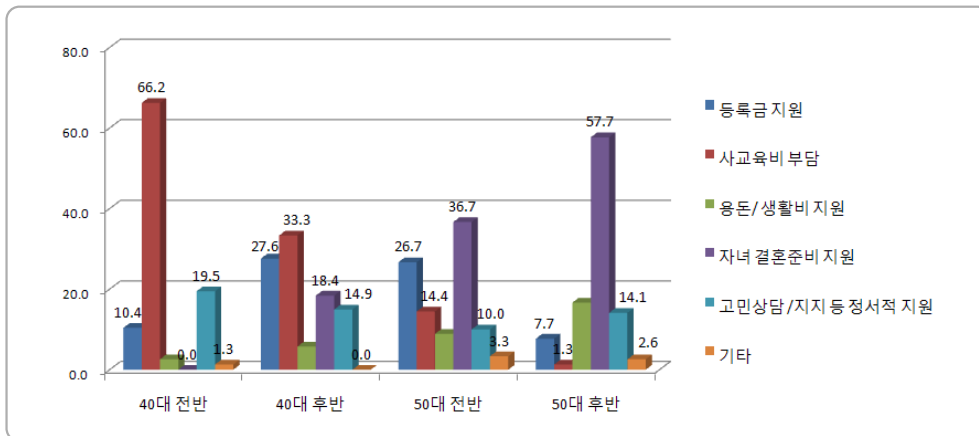
- 자녀양육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사교육비 부담’과 ‘결혼준비 지원’이 각각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등록금 지원’(18.7%), ‘고민상담/지지 등 정서적 지원’(14.5%)이 그 뒤를 이었음.
- 자녀 양육 부담 요인의 경우 연령별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40대 전반에는 ‘사교육비 부담’,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는 ‘등록금 지원’, 50대 후반에는 ‘자녀 결혼준비 지원’이 가장 큰 부담 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즉, 자녀를 가진 여성의 삶은 생애주기 변화와 자녀양육의 단계 변화가 맞물려지면서 40~50대 내내 자녀양육의 짐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임을 나타냄. 한편, 응답자의 12% 가량이 고민상담, 지지 등의 정서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및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함.
- 주요 응답별로, ‘사교육비 부담’ 응답은 40대 전반, 파트타임 경제활동층, 소득 400~500만원대, 대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자녀 결혼준비 지원’ 응답은 50대 후반, 소득 600만원대 이상, 중졸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등록금 지원’ 응답은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 부록 표4 | 참조



주: n=332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II-12 가장 부담이 되는 자녀 양육 측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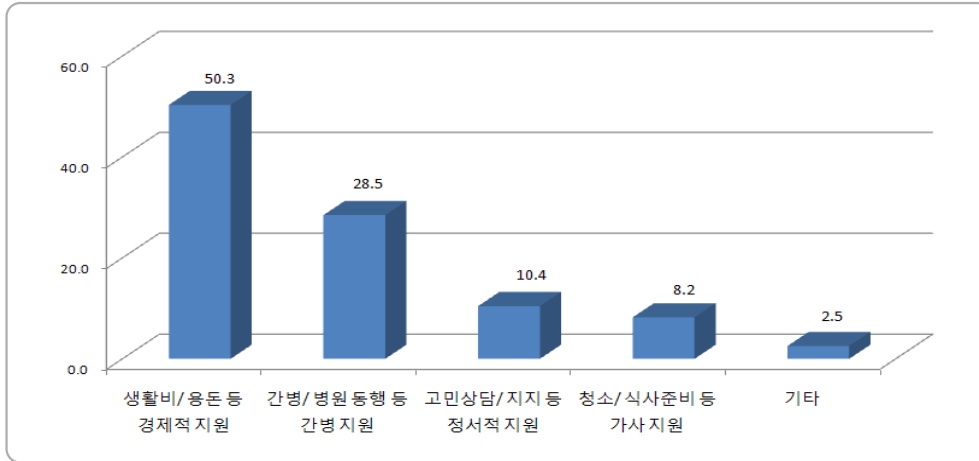
주: n=332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II-13 연령별 가장 부담이 되는 자녀 양육 측면 (%)

4) 부모 부양 측면의 부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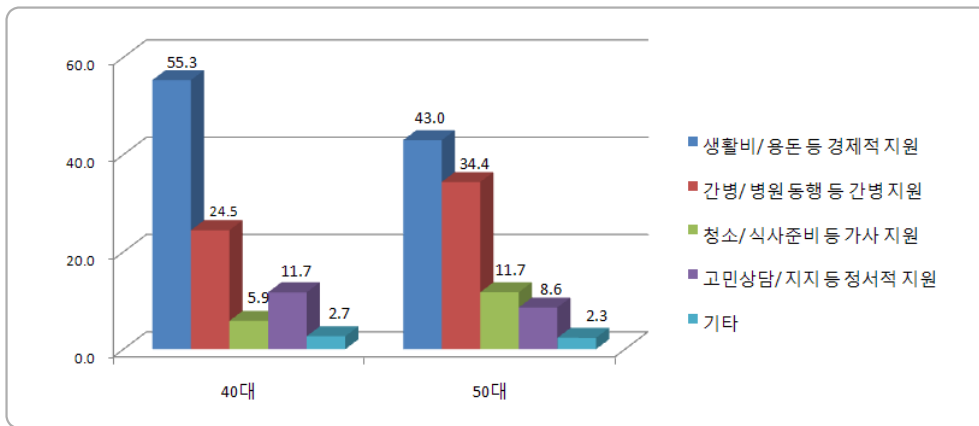
부모 부양 시 최대 부담요인은 '경제적 지원'과 '간병 지원'

- 응답자 10명 중 4명이 부모 부양시 생활비/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50.3%)을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 간병/병원 동행 등의 '간병지원'(28.5%)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연령별로 보면, 40대 여성 가운데 '경제적 지원'을 부담스럽게 생각한 경우가 55.3%로 응답자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간병 지원'은 24.5%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이었음. 반면 50대 여성은 40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병 지원'과 '가사 지원' 응답률이 높았음. 이는 가계 지출이 많은 40대일수록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더욱 부담스럽게 느끼는 반면, 50대는 경제적 지원도 부담스럽기는 하나 간병 및 가사 지원 등 신체적 노력이 필요한 지원 역시 부담되는 것으로 이해됨. 한편, 부모부양 부담 요인은 소득별로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지원'이, 소득이 높을수록 '간병 지원'이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음.
- 주요 응답별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경제적 지원' 응답은 40대, 미혼, 소득 300만원대 이하 및 400~500만원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간병 지원' 응답은 50대 전반, 고소득자(소득 600만원대 이상), 고학력자(대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부록 표5 |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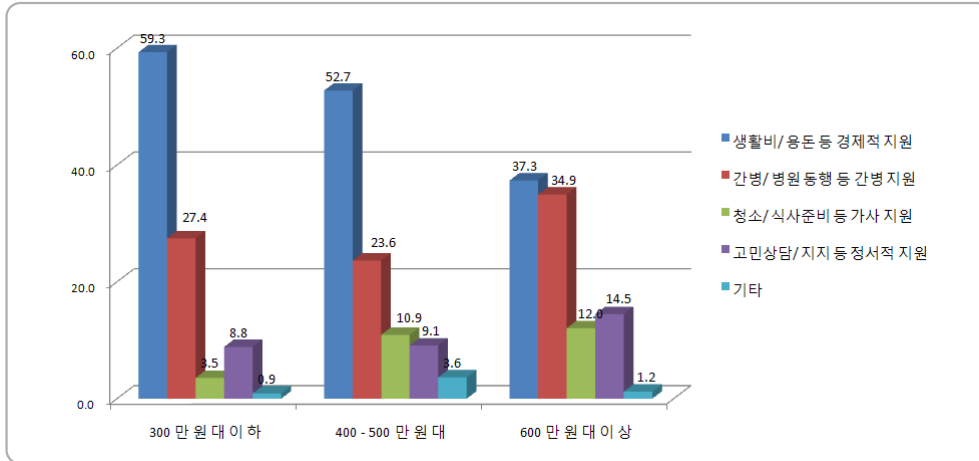
주: n=316명, '부모 안계셔서 해당사항없음'·'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II-14 ■ 가장 부담이 되는 부모 부양 측면 (%)



주: n=316명, '부모 안계셔서 해당사항없음'·'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II-15 ■ 연령별 가장 부담이 되는 부모 부양 측면 (%)



주: n=306명, '부모 안계셔서 해당사항없음'·'잘모름'·'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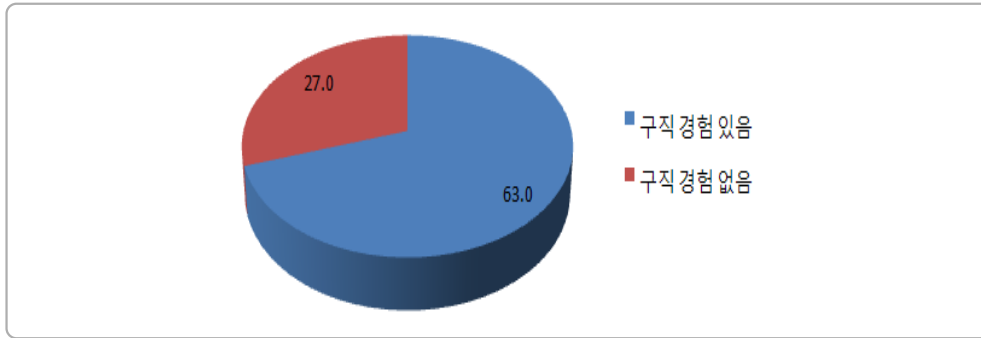
■ 그림 II -16 ■ 가구소득 수준별 가장 부담이 되는 부모 부양 측면 (%)

5) 40세 이후 구직경험 및 구직활동 시 장애요인

10명 중 6명 40세 이후 구직활동 경험 있음
40세 이후 구직시 '나이'와 '근무조건'이 가장 큰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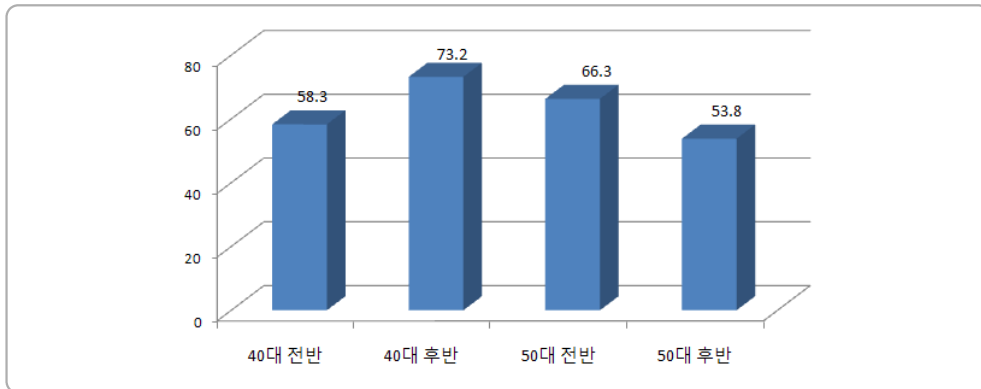
- 중년세대의 현재 및 미래 소득의 불안정화와 더불어 중년세대의 노후빈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현상이 중년 여성의 취업 증가임. 2011년 처음으로 서울시 4050 여성의 취업자수가 2030 여성의 취업자수를 앞선 것으로 나타남(서울통계, 2012). 많은 중년 여성들이 가장의 실직, 자녀교육비, 노후자금 준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임. 그만큼 생계 및 자녀부양의 부담과 고령진입 후 노후부담이 중년여성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함(장혜경 외, 2011).
- 한편, 본 조사를 통해서 서울시 4050 여성의 높은 구직의사가 확인됨. 조사결과, 서울시 4050 여성의 63.0%가 40세 이후에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40대 후반(73.2%)과 50대 전반(66.3%)의 구직 경험율이 특히 높으며, 비취업자 가운데서도 52.6% 가량이 구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여성들이 취업을 희망하지만 장애요인들에 가로막혀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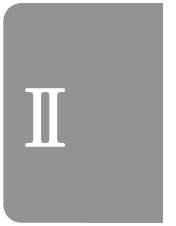
주: n=4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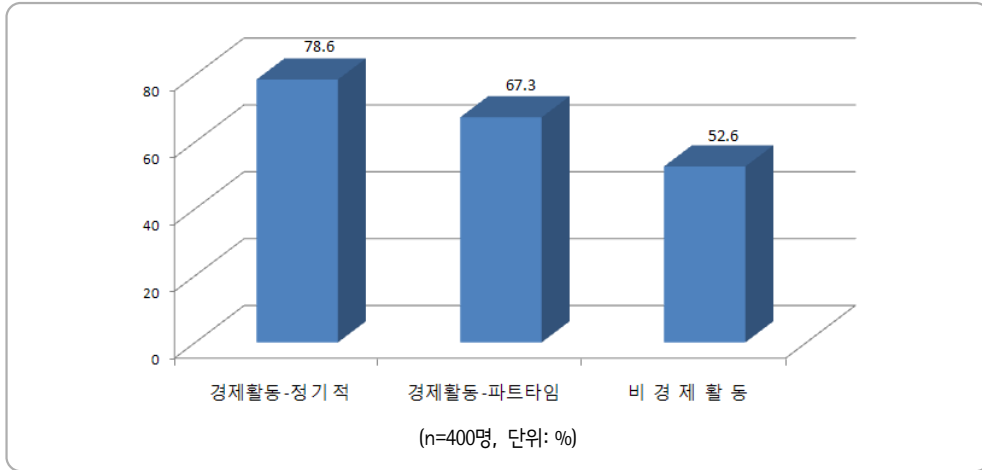
■ 그림 II -17 ■ 40세 이후 구직 경험 (%)



주: n=400명

■ 그림 II -18 ■ 연령별 40세 이후 구직 경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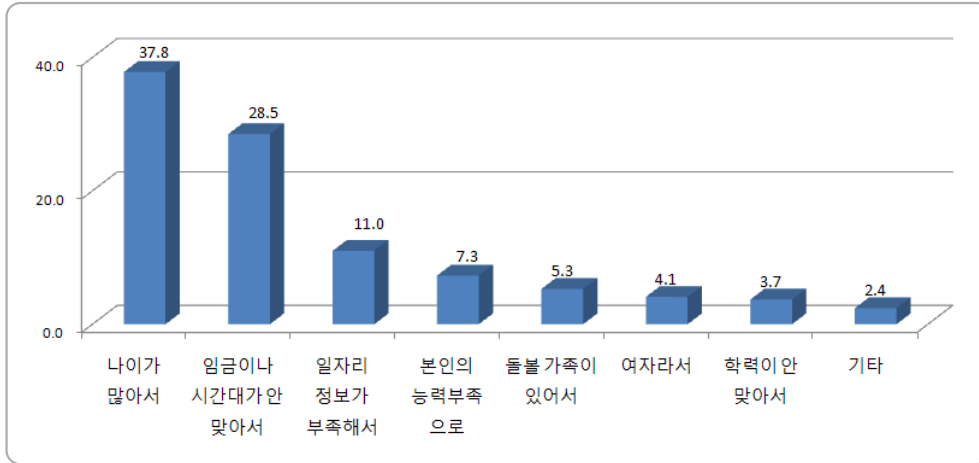




주: n=4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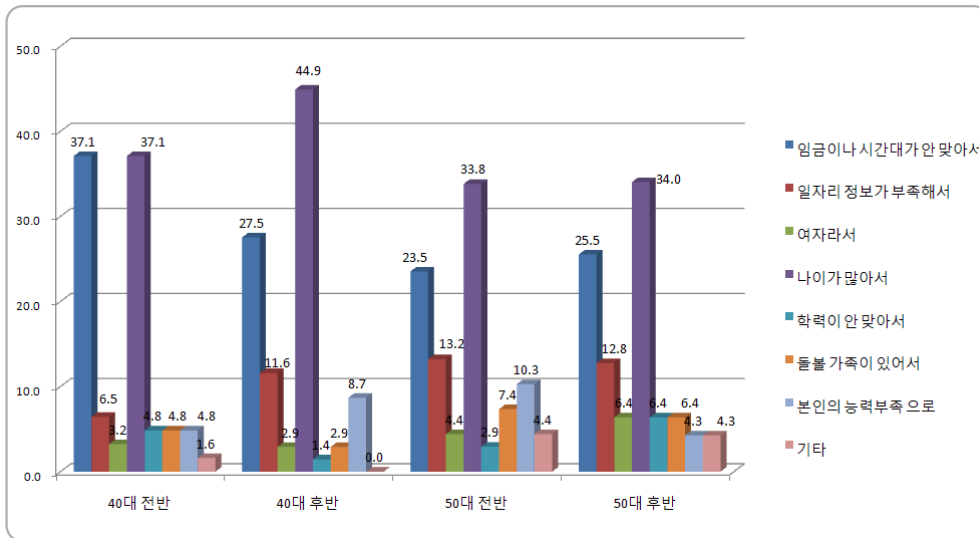
【그림 II-19】 경제활동 유형별 40세 이후 구직 경험 (%)

- 구직경험이 있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40세 이후 구직활동시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나이가 많아서’(37.8%), ‘임금이나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28.5%)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자리 정보가 부족해서’(11.0%)가 그 뒤를 이었음. 반면, ‘여자라서’(4.1%), ‘학력이 안 맞아서’(3.7%)는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냄.
- 연령별 구직시 어려움을 보면, 40대 후반의 구직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들이 특히 연령 차별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고, 연령이 낮을수록 원하는 근무조건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남. 한편, 경제활동 유형별 구직시 어려움을 비교해 보면, 현재 정기적인 일을 하는 여성의 절반(46.8%) 가량이 나이가 많아 구직에 어려움을 경험한 반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은 연령보다도 근무조건이 더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남.
- 주요 응답별 인구학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음. ‘나이가 많아서’ 응답은 40대 후반, 정기적 경제활동층, 미혼, 소득 300만원대 이하에서, ‘임금이나 시간대가 안 맞아서’ 응답은 40대 전반, 파트타임 경제활동층, 소득 400~500만원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록 표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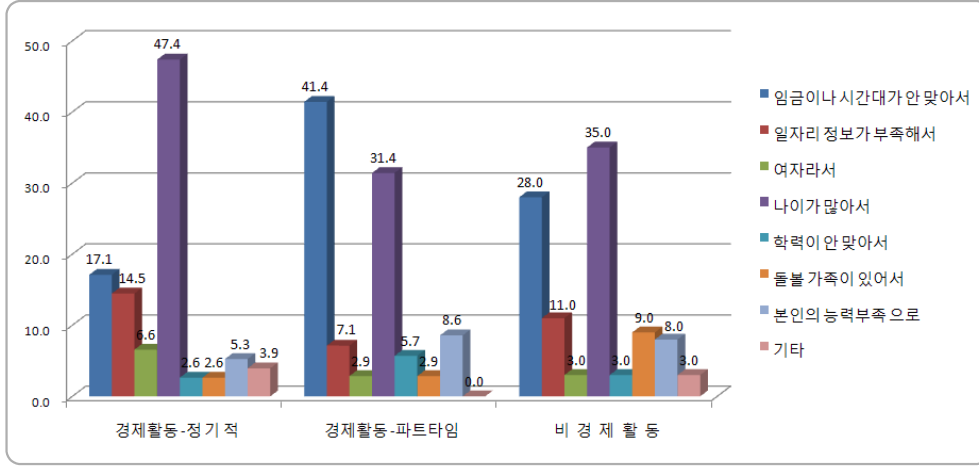
주: n=246명, '구해본 적이 없다'·'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II -20 40세 이후 구직활동시 어려움 (%)



주: n=246명, '구해본 적이 없다'·'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II -21 연령별 40세 이후 구직활동시 어려움 (%)



주: n=246명, '구해본 적이 없다'·'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II-22】 경제활동 유형별 40세 이후 구직활동시 어려움 (%)

○ 이상의 서울시 4050 여성의 연령별 생활실태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II-6】 서울시 4050 여성의 생활실태 요약

		40代 전반	40代 후반	50代 전반	50代 후반
하루 일과	취업	소득활동		소득활동	
	비취업	가사 + 자녀돌봄		가사 + 여가	
개인적 어려움	자녀양육 문제	자녀양육 문제 생계비 부족 문제	노후준비 문제	건강 문제	
자녀양육 부담요인	사교육비 부담	사교육비 부담 + 등록금 부담	등록금 부담 + 자녀 결혼준비 부담	자녀 결혼준비 부담	
부모부양 부담요인	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간병지원	경제적 지원 간병 지원	
40세 이후 구직시 장애요인	근무조건, 나이	나이			

III

서울시 4050 여성의 정책 인식 및 수요

1. 서울시 4050 여성의 서울시정 인식 및 수요
2. 서울시 4050 여성의 여성정책 인식 및 수요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II

서울시 4050 여성의 정책 인식 및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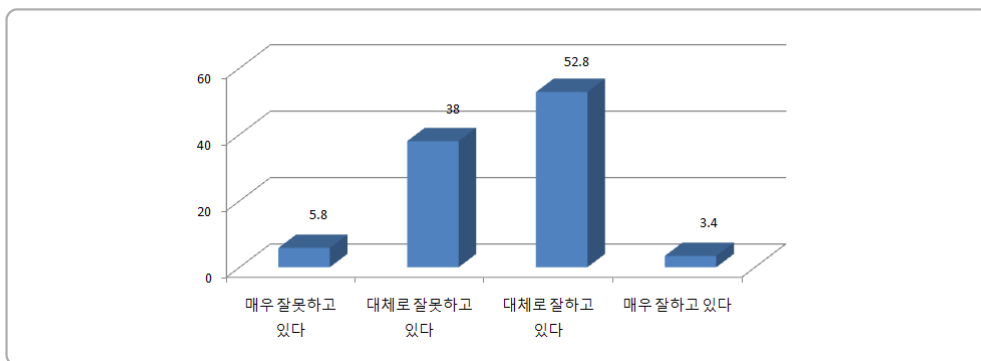
III

1. 서울시 4050 여성의 서울시정 인식 및 수요

1) 시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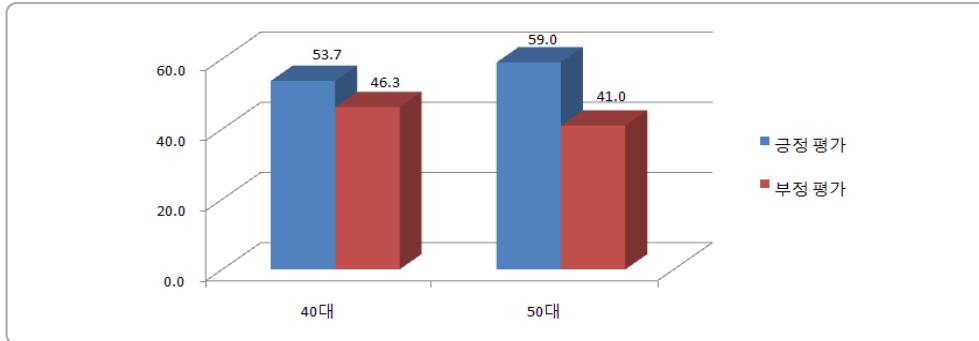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다소 높음

○ 서울시 4050 여성의 시정운영 평가를 보면, ‘긍정’ 평가가 56.2%로 ‘부정’ 평가(43.8%)보다 다소 높았음. ‘긍정’ 평가는 40대보다 50대에서, 비취업자보다는 취업자에서, 그리고 400~500만원대 가구소득층에서 응답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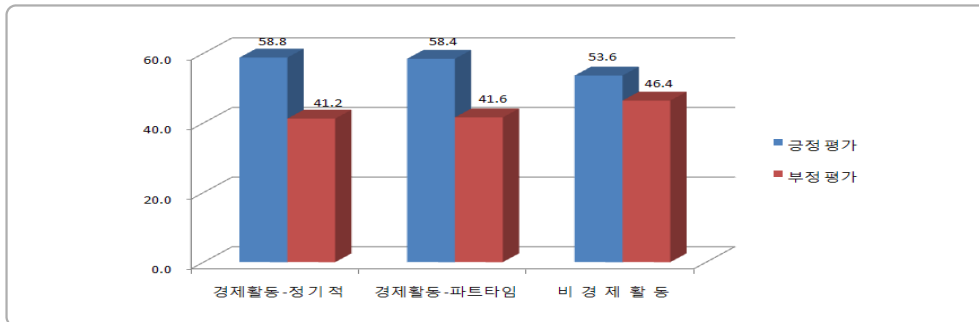
주: n=379명, '잘 모름'·무응답 제외

Ⅲ-1 서울시 4050 여성의 시정운영 평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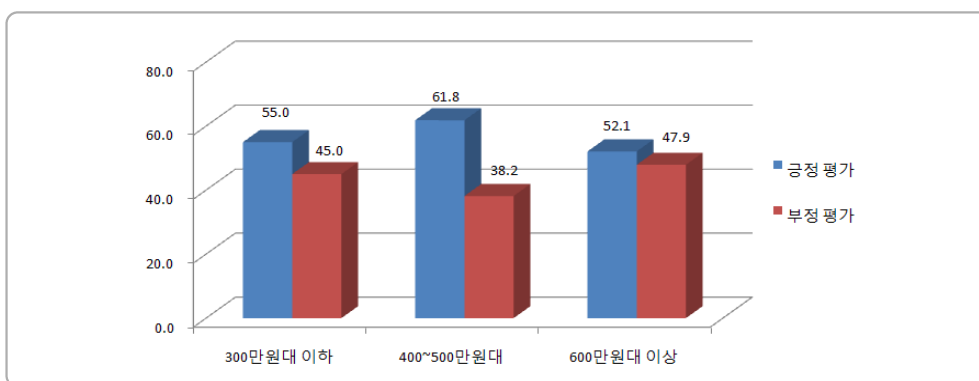
주: n=379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Ⅲ-2 | 연령별 시정운영 평가 (%)



주: n=379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Ⅲ-3 | 경제활동 유형별 시정운영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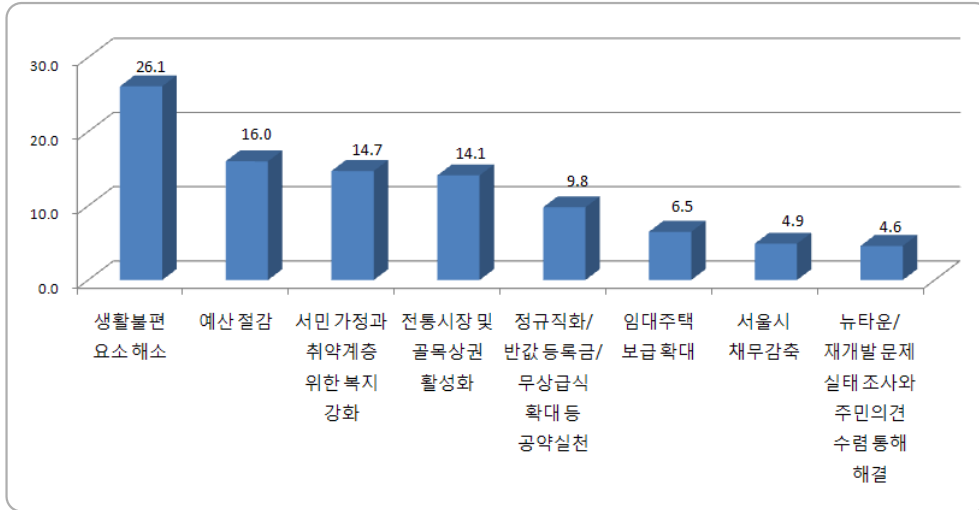
주: n=367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Ⅲ-4 | 가구소득 수준별 시정운영 평가 (%)

2) 서울시 긍정평가 사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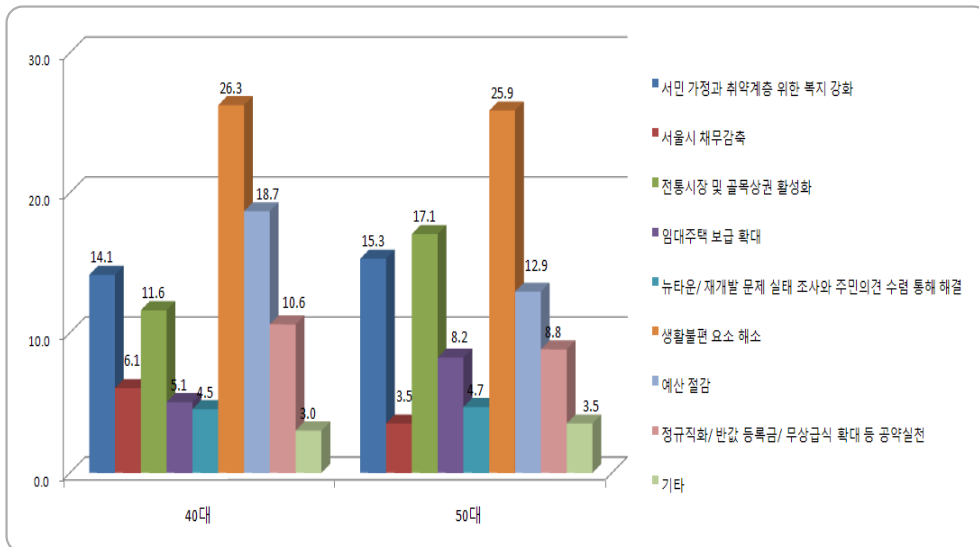
가장 잘 되고 있는 서울시 사업은 ‘생활불편요소 해소’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생활불편요소 해소’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절감’(16.0%), ‘서민가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강화’(14.7%),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14.1%)가 그 뒤를 이었음.
- 40대와 50대 모두 ‘생활불편요소 해소’를 서울시의 긍정평가 사업분야로 가장 많이 선택한 가운데, 40대는 50대에 비해 ‘예산절감’ 분야를 잘 되고 있는 사업으로 선택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50대는 40대에 비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선택비중이 높았음. 가구소득 수준별 특징을 보면, 300만원대 이하 저소득층은 ‘서민가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높게 평가한 반면, 400만원 이상 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생활불편요소 해소’를 선택한 비중이 더 컸고, 400~500만원대 소득층은 특히 ‘뉴타운/재개발 문제 실태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해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주요 응답별 인구학적 특징을 보면, ‘생활불편요소 해소’ 응답은 40대 전반, 50대 전반, 대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예산절감’ 응답은 40대 후반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옴. 한편 ‘복지강화’ 응답은 50대 후반, 소득 300만원대 이하, 중졸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응답은 50대 후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부록 표8** |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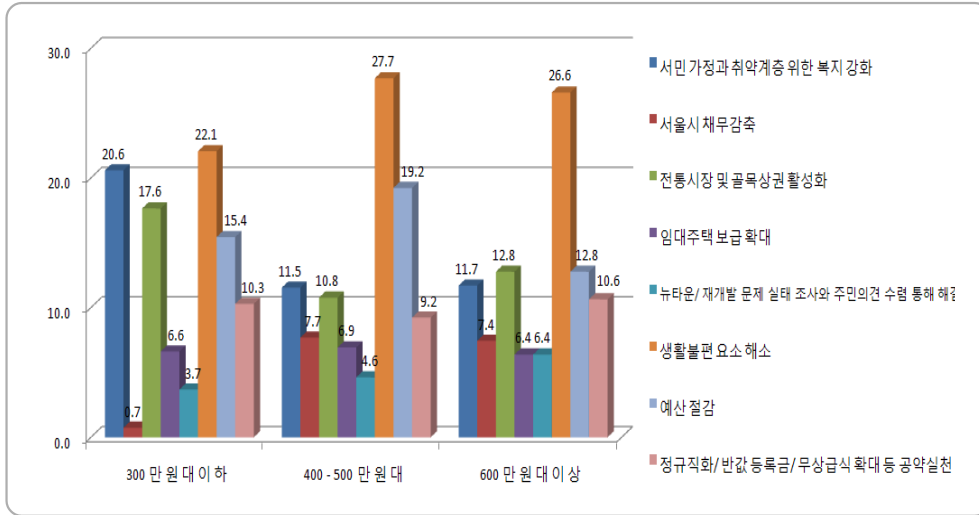
주: n=368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Ⅲ-5 가장 잘되고 있는 서울시 사업 (%)



주: n=368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Ⅲ-6 연령별 가장 잘되고 있는 서울시 사업 (%)



주: n=360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III-7 가구소득 수준별 가장 잘되고 있는 서울시 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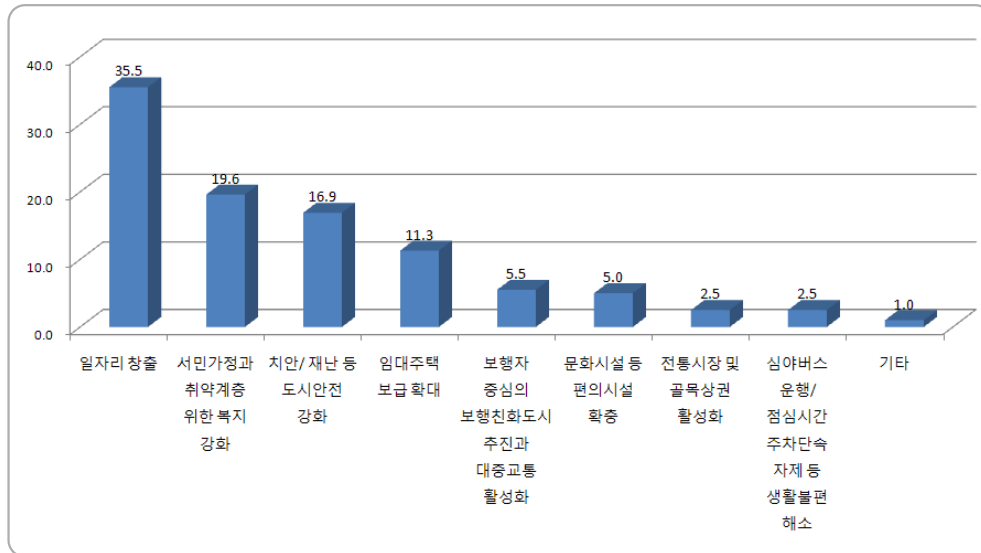
3) 향후 더 집중해야 할 사업 분야

향후 더 집중해야 할 사업은 '일자리 창출'. 그 외, '복지', '도시안전' 順

- 서울시가 앞으로 더 집중해주기를 바라는 사업 분야에 대한 질문에, '일자리 창출'(35.3%), '서민가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강화'(19.5%), '치안, 재난 등 도시안전 강화'(16.9%) 순의 응답률을 보여, 서울시 4050 여성이 '복지'와 '안전'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특성을 보면, 40, 50대 여성 모두 '일자리 창출'을 서울시가 향후 역점을 두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요가 50대가 40대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50대 여성 일자리 대책이 시급함을 나타냄. 한편, 40대는 '복지 강화'와 '도시안전 강화'에 대한 수요가 5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경제활동 유형 및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차이 역시 두드러졌음. 경제활동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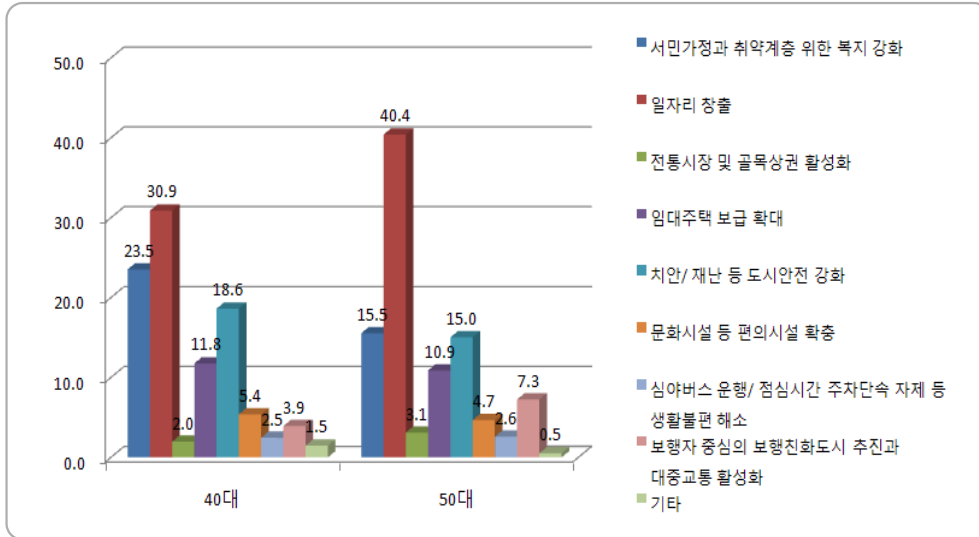
별 차이를 보면, 정기적 경제활동층은 ‘복지강화’와 ‘도시안전’에, 파트타임 경제활동층은 ‘일자리 창출’에, 비경제활동층은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확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음. 가구소득 수준별 특성을 보면, 300만원대 이하인 경우 ‘복지 강화’와 ‘임대주택 보급확대’에 다른 소득층보다 높은 수요를 나타냈고, 400~500만원대 소득층의 경우 ‘일자리 창출’이 다른 소득층에 비해 그 비중이 월등히 컸으며, 600만원 이상 소득층의 경우 ‘도시안전 강화’, ‘편의시설 확충’, ‘생활불편 해소’의 응답비중이 다른 소득층에 비해 높았음.

- 주요 응답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일자리 창출’ 응답은 50대 후반, 파트타임 경제활동층, 비경제활동층, 소득 400~500만원대, 중졸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한편, ‘복지강화’ 응답은 40대 전반, 정기적 경제활동층, 소득 300만원대 이하, 저학력자(중졸이하, 고졸)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도시안전 강화’ 응답은 40대, 정기적 경제활동층, 소득 600만원대 이상, 대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부록 표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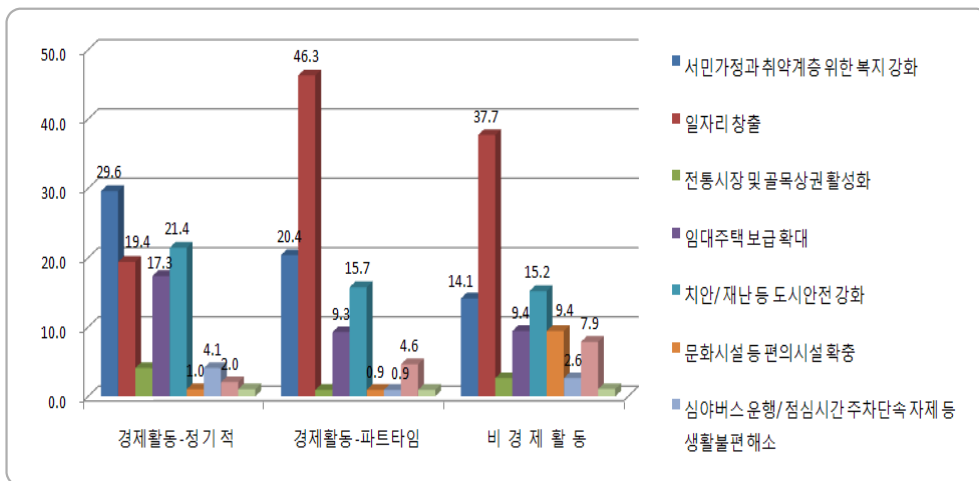
주: n=397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 그림 Ⅲ-8 ▮ 향후 더 집중해야 할 사업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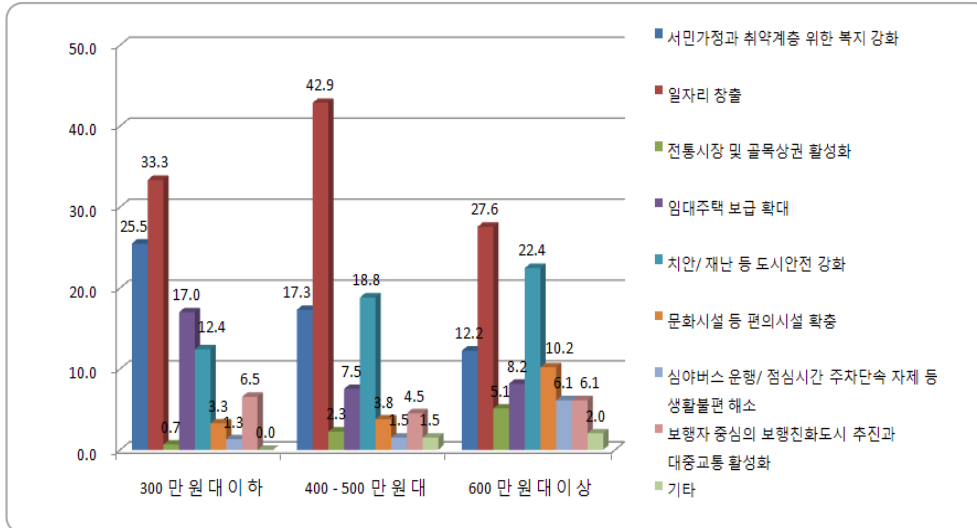
주: n=397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III-9 | 연령별 향후 더 집중해야 할 사업분야 (%)



주: n=397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III-10 | 경제활동 유형별 향후 더 집중해야 할 사업분야 (%)



주: n=384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III-11】 가구소득 수준별 향후 더 집중해야 할 사업분야 (%)

2. 서울시 4050 여성의 여성정책 인식 및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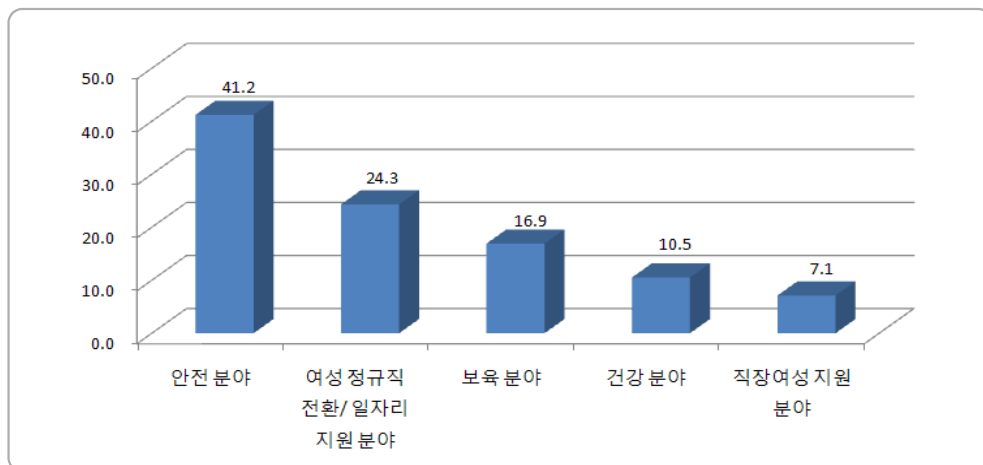
1) 서울시 추진 여성정책 중 기억나는 정책 분야

가장 기억나는 서울시 여성정책 분야는 '안전 분야'.
그 외, '여성 정규직 전환/일자리 지원 분야', '보육 분야' 順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책 중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정책분야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안전 분야'가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정규직 전환/일자리 지원 분야'(24.3%), '보육 분야'(16.9%)가 그 뒤를 이었음.
- 연령별 특징을 보면, 전 연령에서 '안전 분야'가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특히 40대 전반과 50대 전반에서 응답율이 높았음. 자녀 혹은 손자녀를 돌볼 확률이 높은 40대 전반과 50대 후반의 경우 '보육 분야'를 다른 연령대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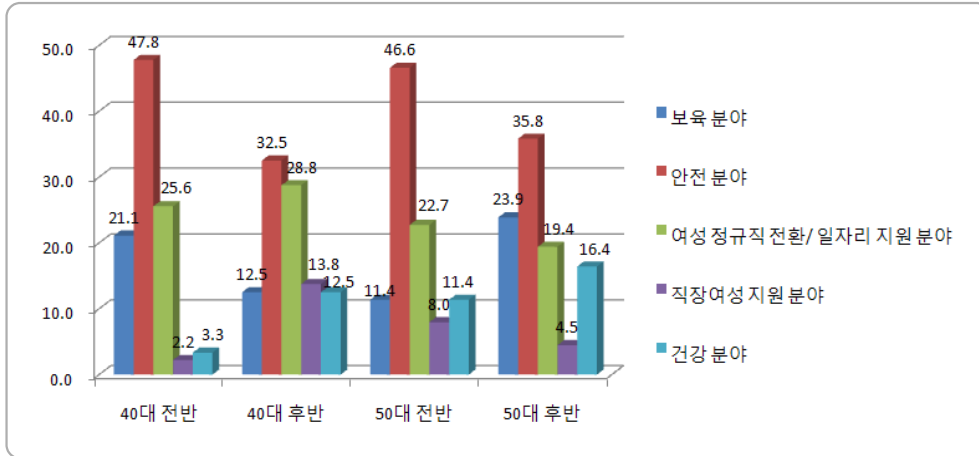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더 많이 기억하고 있었음. 또한 40대는 50대에 비해 ‘여성 정규직 전환/일자리 지원 분야’를 기억하는 비중이 높았고, 50대 후반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건강 분야’를 선택한 응답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한편, 가구소득 수준별 특징을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안전 분야’와 ‘여성 정규직 전환/일자리 지원 분야’를, 낮을수록 ‘보육 분야’를 가장 기억나는 정책 분야로 꼽는 경향을 보임.

- 주요 응답별 특징을 보면, ‘안전 분야’의 경우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 분야로 선택되었으며, 특히 40대 전반과 50대 전반, 정기적 경제활동층, 소득 600만원대 이상, 대졸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임. 40대, 파트타임 경제활동층, 소득 300만원대 이하, 중졸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전반적으로 볼 때, 학력수준이 높고 고소득과 안정성 높은 일자리를 가질수록 안전과 일자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자녀 혹은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 저소득 여성, 파트타임 여성일수록 보육 분야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이해됨. ☞ 부록 표10 |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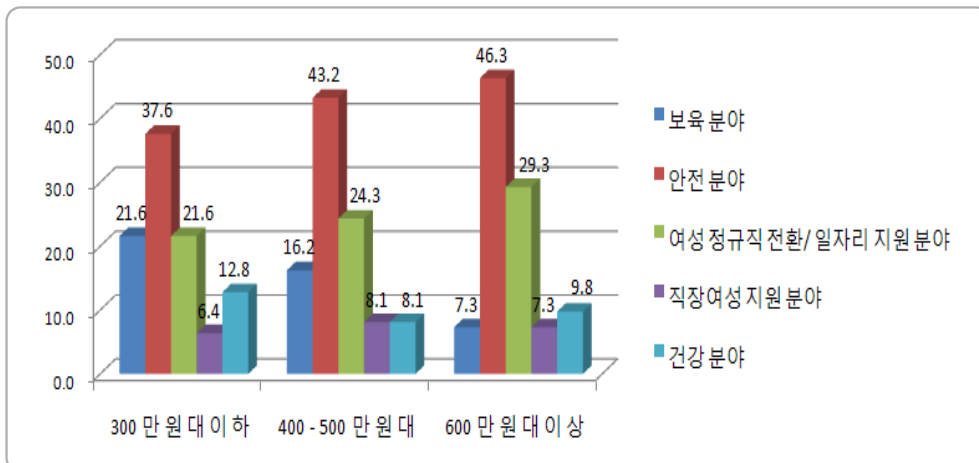
주: n=325명, ‘특별히 없다’·무응답 제외

■ 그림 III-12 ■ 서울시 추진 여성정책 중 기억나는 정책분야 (%)



주: n=325명, '특별히 없다'·무응답 제외

그림 Ⅲ-13 | 연령별 서울시 추진 여성정책 중 기억나는 정책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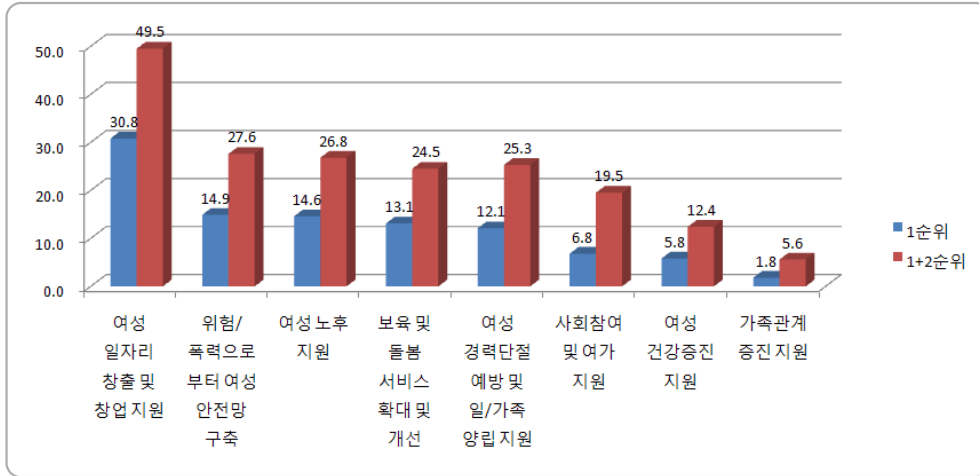
주: n=318명, '특별히 없다'·무응답 제외

그림 Ⅲ-14 | 가구소득 수준별 서울시 추진 여성정책 중 기억나는 정책분야 (%)

2) 향후 여성정책 관심 역점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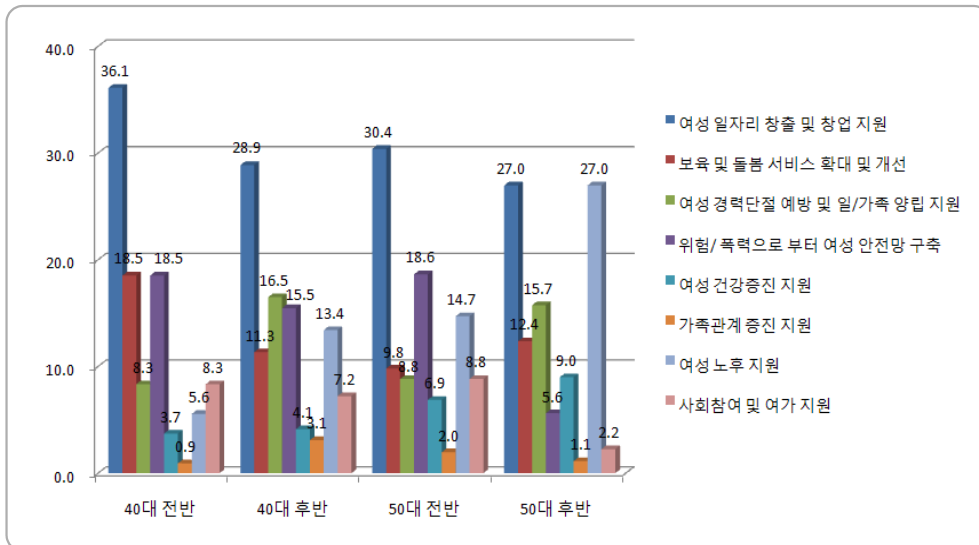
향후 역점추진 할 여성정책 분야는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 향후 서울시의 관심이 필요한 여성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1순위 여성정책분야로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30.8%)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이 ‘위험·폭력으로부터의 여성 안전망 구축’(14.9%), ‘여성 노후 지원’(14.6%), ‘보육 및 돌봄서비스 확대 및 개선’(13.1%) 순이었음.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한 경우에도 1순위와 순서상 큰 차이가 없었으나 다만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이 ‘보육 및 돌봄서비스 확대 및 개선’보다 근소한 차이로 더 선호됨.
- 연령별 특징을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선택하는 비중이 커지고,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 노후 지원’과 ‘여성 건강 지원’의 선택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40대 전반의 경우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과 ‘보육 및 돌봄서비스 확대 및 개선’ 응답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40대 후반과 50대 후반은 비슷한 응답 상황을 보인 가운데, 다만 40대 후반은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족 양립 지원’, 50대 전반은 ‘여성 안전망 구축’과 ‘사회참여 및 여가 지원’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임. 마지막으로 50대 후반은 ‘여성 노후 지원’과 ‘여성 건강 지원’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선호를 나타냄. 한편, 경제활동 유형별 특징을 보면, 정기적 경제활동층은 ‘보육 및 돌봄서비스 확대 및 개선’과 ‘여성 안전망 구축’에, 파트타임 경제활동층은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에, 비경제활동층은 ‘사회참여 및 여가 지원’과 ‘여성 건강증진 지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나타냄.
- 1순위 응답률을 기준으로 주요 응답별 인구학적 특징을 보면,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은 40대 초반과 파트타임 경제활동층에서 압도적으로 선택되었고, ‘여성 안전망 구축’은 40대, 정기적 경제활동층,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 부록 표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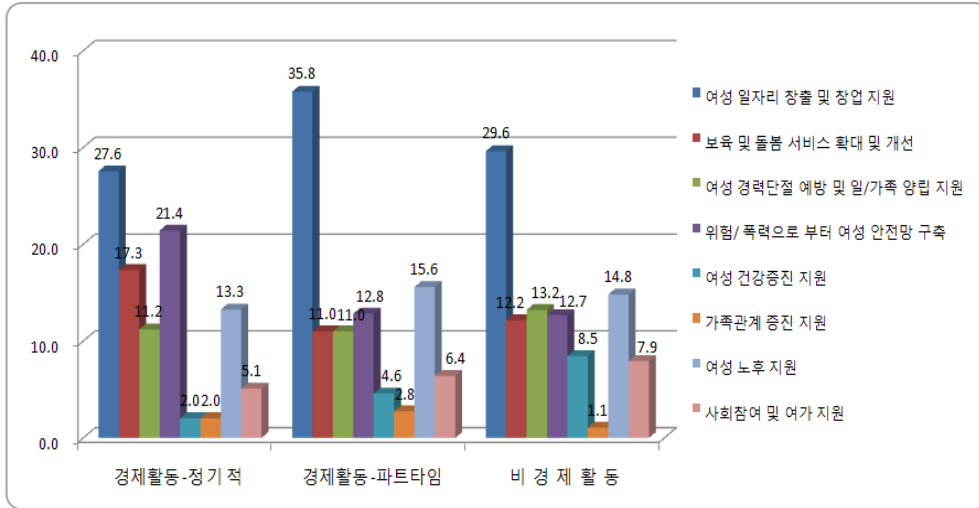
주: n=396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중복응답

그림 Ⅲ-15 | 향후 여성정책 관심 역점 분야 (%)



주: n=396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Ⅲ-16 | 연령별 향후 여성정책 관심 역점 분야(1순위, %)



주: n=396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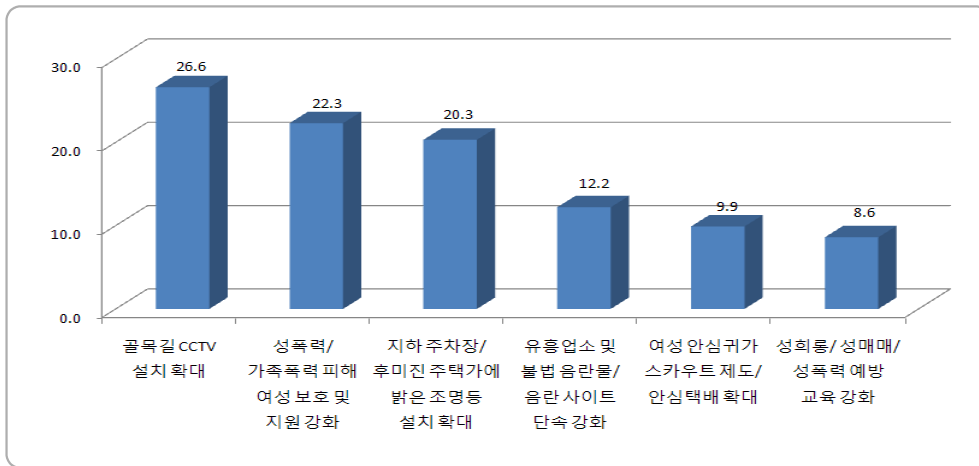
Ⅱ 그림 Ⅲ-17 Ⅱ 경제활동 유형별 향후 여성정책 관심 역점 분야(1순위, %)

3) 향후 여성안전정책 관심 역점 분야

향후 역점추진 할 여성안전정책 분야는
 ‘CCTV 확대’, ‘성·가족폭력 보호/지원’, ‘조명등 확대’ 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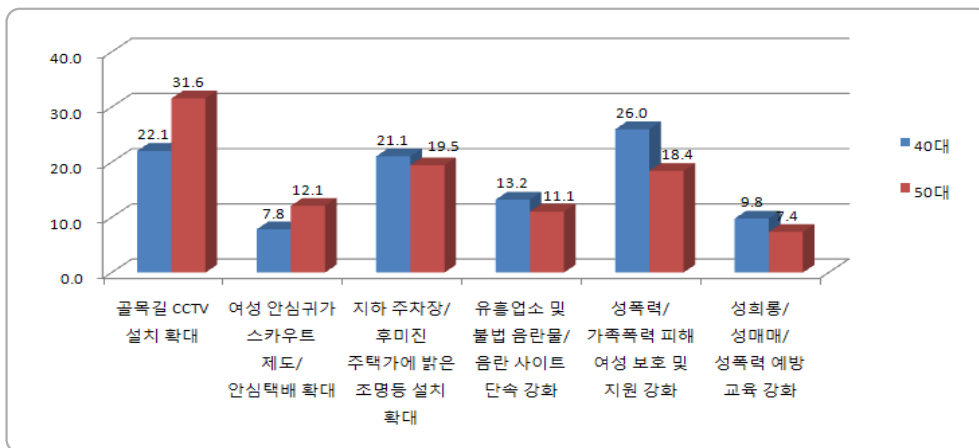
- 향후 서울시가 여성안전과 관련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을 질문한 결과, ‘골목길 CCTV 설치 확대’가 26.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폭력, 가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22.3%), ‘지하 주차장/후미진 주택가에 밝은 조명 등 설치 확대’(20.3%)가 그 뒤를 이음.
- 연령별 특징을 보면, 40대는 ‘성폭력/가족폭력 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50대에 비해서도 비율이 훨씬 높아 성·가족폭력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임. 반면, 50대는 ‘골목길 CCTV 설치 확대’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면서 40대와도 차이가 컸고,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안심택배 확대’에 있어서도 40대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주요 응답별로 보면, ‘골목길 CCTV 설치 확대’ 응답은 50대 전반, 비경제활동

층, 소득 400~500만원대에서, '성폭력, 가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응답은 40대 전반, 소득 300만원대 이하에서, '지하 주차장/후미진 주택가에 밝은 조명등 설치 확대' 응답은 40대 전반, 정기적 경제활동층, 소득 600만원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부록 표13 참조



주: n=394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Ⅲ-18 | 향후 여성안전정책 관심 역점 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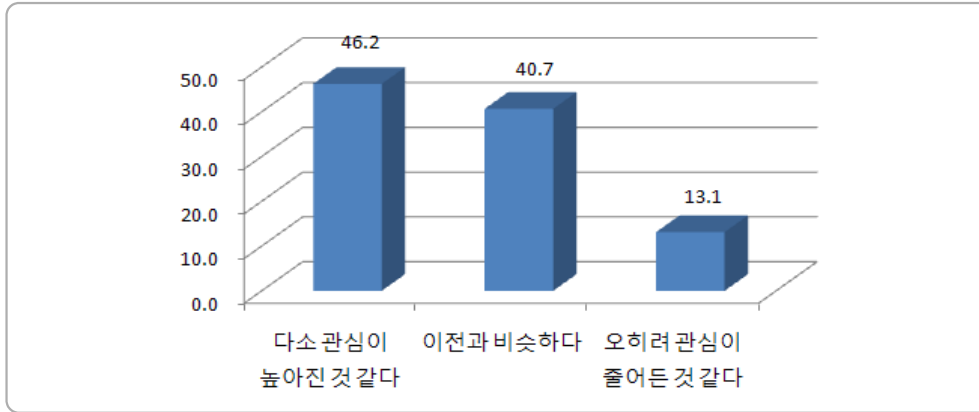
주: n=394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Ⅲ-19 | 연령별 향후 여성안전정책 관심 역점 분야 (%)

4) 현 시장의 여성정책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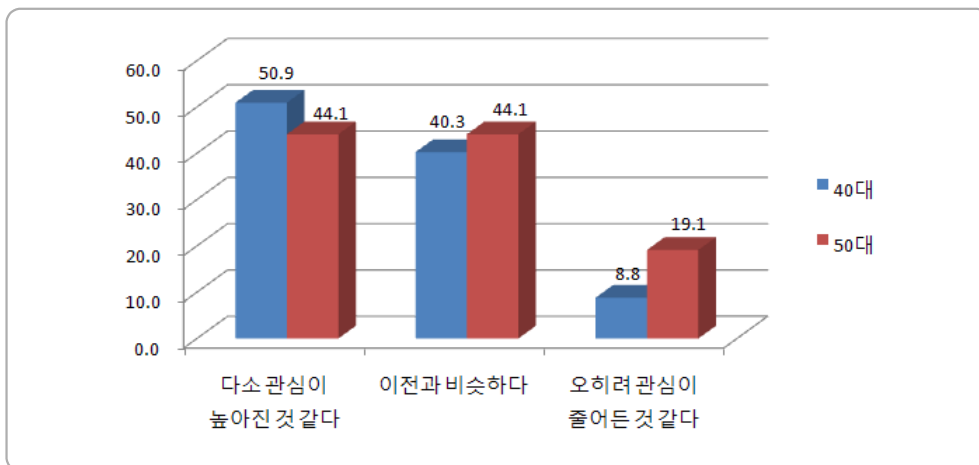
‘긍정시각’(46.2%)이 ‘부정시각’(13.1%)보다 3배 이상 높음

- 마지막으로 이전 시장들에 비해 현 시장이 여성정책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다소 관심이 높아졌다’는 긍정 평가가 46.2%, ‘오히려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부정 평가가 13.1%로 나타나 긍정 시각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특징으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현 시장의 여성정책 관심도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있는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정’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또한 시정운영 평가별 특징을 분석한 결과, 현 시정운영을 긍정 평가할수록 현 시장이 여성정책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현 시정운영을 부정 평가할수록 시장의 여성정책 관심도 역시 ‘부정’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즉, 4050 여성의 시정평가와 시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노력 간에 일정간의 상관성이 존재함을 시사함.
- 응답별로 보면, ‘다소 관심이 높아짐’ 응답은 40대~50대 전반, 정기적 경제활동층, 시정운영 긍정평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오히려 관심이 줄어들음’ 응답은 50대 후반, 비경제활동층, 시정운영 부정평가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부록 표14** | 참조



주: n=305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Ⅲ-20】 현 시장의 여성정책 관심도 (%)



주: n=305명, '잘모름'·무응답 제외

【그림 Ⅲ-21】 연령별 현 시장의 여성정책 관심도 (%)

○ 이상의 서울시 4050 여성의 연령별 정책 인식 및 수요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III-1 서울시 4050 여성 정책 인식 및 수요 요약

	40代 전반	40代 후반	50代 전반	50代 후반
서울시 긍정평가 사업분야	생활불편요소 해소	예산절감 생활불편요소 해소	생활불편요소 해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복지강화
향후 더 집중해야 할 사업분야	복지 강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가장 기억나는 서울시 여성정책분야	안전	안전 여성 정규직 전환/일자리 지원	안전	
향후 여성정책 관심역점분야	여성일자리·창업 보육·돌봄 여성 안전망	여성일자리·창업 경력단절예방 여성 안전망	여성일자리·창업 여성 안전망	여성일자리·창업 여성 노후
향후 여성안전정책 관심 역점 분야	폭력피해여성 보호·지원 조명등 설치 확대	CCTV 설치 확대 폭력피해여성 보호·지원		CCTV 설치 확대 조명등 설치 확대



IV

정책적 함의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IV

정책적 함의

- 4050세대는 가정 내에서는 자녀양육과 노부모 부양, 가사부담 등 가족돌봄의 부담이 집중하고 직장에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익힌 젊은 세대와의 경쟁과 조기퇴직의 압박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세대임(전영수, 2013). 신체적으로도 각종 성인병과 노화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실직, 은퇴, 부모의 사망, 건강 이상 등 다양한 부정적 생애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감 등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그만큼 결혼생활의 위기도 많아 이혼도 많은 시기임(한경혜·이정화, 2012). 그렇기에 4050세대는 사실상 가장 풍요로운 시기이지만 과중한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세대임. 4050 여성은 이러한 세대적 고충을 온전히 안고 살아가고 있음.
- 한편 최근에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들이 가중되면서, 4050 여성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 사교육비와 등록금이 증가하고 청소년 실업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를 키우고 독립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부모세대에 비해 길어지고 있음. 계속 오르는 학원비와 등록금 부담도 크지만, 대학 졸업 후 자녀가 직업을 구하는 동안 자녀의 생활도 책임져야 하고, 자녀가 취업한 후에도 자녀의 결혼비용과 주택마련 비용까지 부모가 책임지는 사회이다 보니, 자녀양육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큼.
- 가계불안과 노후불안 위기도 심각한 상황임. IMF와 외환위기 이후 조기퇴직이 많아지면서 때아닌 소득중단이라는 경제적 위기상황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가 길 것으로 예상되고 예전처럼 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노후불안 문제도 4050 세대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녀양육이나 부모부양에 밀려 준비 없이 불안한 상태로 은퇴와 노후를 맞고 있음(윤소영, 2011). 과거 안정적이었던 중년세대의 삶이 이제는 현재도 어렵고 미래도 불투명해짐.

- 정책적 관심에서 배제된 가운데 4050세대가 자구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선택하는 전략이 4050 여성의 취업인 것으로 보임(전영수, 2013). 즉, 4050 여성이 가족의 부족한 교육비, 생계비, 노후생활비 등을 메꾸기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 들고 있다는 것임. 이에 2011년부터는 서울시 청년 여성 취업자보다 중년 여성 취업자 비중이 앞서게 되는 상황이 되었음(서울통계, 2012). 그러나, 생계형으로 취업에 뛰어들다보니 근무조건과 연령 차별 등의 장벽에 부딪치면서 비정규직, 저임금 등 열악한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이에 4050 여성은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구조 하에서 가사 및 자녀양육 등 가족돌봄의 분담구조는 조정되지 않은 채 소득활동 등 다른 책임까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임. 결국 4050 여성의 삶은 더욱 불안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4050 여성의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4050 여성의 고충을 해소하고 현재와 노후의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개입의 방안으로 다음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1) 서울시 4050 여성 일자리 지원

- 4050 여성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여성 스스로도 가장 희망하듯 여성 일자리(취업 혹은 창업) 지원으로 보임. 여성이 되도록 이른 시기에 취업전선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중요함. 여성의 소득은 가족 전체의 소득보전과 노후준비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평균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어짐으로 인해 노후에 혼자 남을 가능성이 높은 여성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서도 필요함. 특히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공적 혜택이 고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른 연령의 시점에서 고용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무엇보다 4050 여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자녀돌봄에서 자유롭지 못한 40대 여성의 경우 시간대 등 근무조건에 구애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양육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일자리나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한 일자리를 확충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50대의 경우 연령 차별로 인한 취업장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나이가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장려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직업 및 직장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이렇게 개발·창출된 다양한 일자리 정보 공유를 위해 ‘4050 여성 일자리 박람회’ 등의 개최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필요한 것이 4050 여성 적합 교육훈련과 취업알선, 근로복지 등 고용서비스 지원임. 무엇보다 생계형 취·창업 희망자 혹은 고학력 경력단절자 등 유형에 맞는 직업 및 창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4050 여성이 희망하는 직업 및 업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맞춤 정보 및 취업알선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일자리를 희망하는 취약계층 여성에게 보다 적극적인 근로복지를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하며, 특히 여성 가구주에 대한 정책적 주목이 필요함.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서울시 가구주의 10%, 서울시 여성 가구주의 38%가 4050 여성 가구주임. 4050 여성 가구주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가장이 되거나 이혼으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게 된 경우가 많음. 현재 중장년 여성에게 직업훈련시 생활비를 일부 보조하고 있는데, 이혼, 사별, 남편의 실직 등으로 인해 실질적 가장이 된 4050 여성 가구주들에 대해서는 특히 직업훈련 중 생계비를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4050 취업 여성들이 자녀양육 때문에 경력단절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걱정없이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 지원 역시 필요함. 본 조사를 통해 서울시 40대 여성의 상당수가 자녀양육과 생계비 부족 문제를 안고 있었음. 사교육비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은 주부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지만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파트타임 일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4050 여성의 다양한 취업유형에 맞게 돌봄서비스 역시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초등돌봄 및 사교육 비용부담 완화의 차원에서 4050 취업여성 혹은 직

업훈련여성의 자녀들에게 방과후 학교 및 돌봄기관(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의 우선 이용권을 부여하거나 이용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보육과 돌봄 간의 정보·서비스 연계를 통해 자녀돌봄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일자리 연계시 보육·돌봄서비스도 함께 연계해주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음.

2) 서울시 4050 여성 안전 지원

- 본 연구를 통해 서울시 4050 여성에게 있어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중요한 정책수요가 바로 여성안전 지원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4050 여성들에게 여성안전정책이 대표적인 여성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최근 서울시의 적극적인 여성안전대책 추진의 결과로 이해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서울시가 역점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으로 ‘위험·폭력으로부터의 여성안전망 구축’이 높은 응답률은 보인 것은 현 여성안전대책에 대한 보완 혹은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서울시 4050 여성들의 안전 관련 선호정책은 ‘골목길 CCTV 설치 확대’와 ‘성폭력, 가족폭력 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지하주차장, 후미진 주택가에 밝은 조명등 설치 확대’였고, 상대적으로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제도, 안심택배 확대’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나 안심택배 등은 사실상 4050 여성보다는 2030 여성 혹은 1인 비혼여성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여짐. 이에 4050 여성의 정책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CCTV 및 조명등 설치 확대 등 4050 여성에게 선호도 높은 사업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또한 CCTV에 눈에 띄는 색을 입히는 등 시각적 효과를 통해 CCTV의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써 여성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함. 이와 더불어 일부 자치구에서 실시했던 골목환경 개선사업(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서 선정된 ‘구로4동 골목환경개선모임’에서 진행한 골목길 밝은 벽화 그리기, 도색작업을 통한 계단 구분 등)이나 단독·연립주택 밀집지역 ‘범죄예방 안전지도’(강북구) 등 생활밀착적 여성안전정책을

서울시 전체에 확대보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3) 서울시 4050 여성 노후 지원

- 현 4050 세대는 역대 최대 은퇴예비자 집단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2026년 경에는 절반 이상이 노년층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권기동,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은퇴예비자들은 주로 경제적 여력의 문제로 은퇴 및 노후 준비가 미진하며, 대부분 대중매체, 직장동료 등 사적 경로를 통해 은퇴 및 노후준비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대부분(74.4%) 은퇴 전까지 노후준비를 안하고 있음(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2011).
- 4050 세대 가운데서도 여성은 노후준비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는데, 실제로 본 연구의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4050 여성이 연령대나 경제활동 유형을 가리지 않고 노후준비 문제를 개인적 어려움으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전업주부나 경력단절 여성은 소득활동이 없고 노후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노후준비에 특히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음. 4050 취업 여성이라도 남성에 비해 종사상 지위 수준이 낮아 임금이 적고 많은 경우 생계를 목적으로 취업하기 때문에 본인 혹은 가족을 위해 노후준비를 할 여력은 없을 것으로 보임. 게다가 여성은 평균 수명이 길어 배우자 없이 혼자 지내는 기간이 불가피한데, 노후대비가 없을 경우 노후 빈곤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 4050 여성의 노후 지원을 위해서는 1차적으로 앞서 제시한 일자리 지원 정책이 요구되며, 이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4050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가 필요함. 지자체에서 연금구조를 개선하기는 어려우나 홍보나 인식개선 활동 등을 통해 연금구조에 취약한 전업주부 혹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취약계층 4050 여성의 노후 빈곤 예방을 위해 보험료 지원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특히 여성일수록 노후준비를 40대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이에 4050 여성이 스스로 하는 노후준비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온라인 포털 및 오프라인 대면 서비스, 집체 교육 등을 통해 노후의 사회보장제도, 노후의 일자리 및 창업, 평생교육 및 여가생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이고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노후 설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참고문헌

- 고지영·양정선·최인선. 2011. “폐경기 여성의 삶의 질과 정책지원 방안 연구”,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 권기동. 2013. “4050 중산층 가계수지의 명과 暗”, 『미래에셋 은퇴리포트 05』, 미래에셋은퇴연구소.
- 서울통계. 2012.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의 삶: 40-50대 여성취업자가 20-30대 여성취업자 추월”, 통계웹진 06(60호), 서울시.
- 윤소영. 2011. “100세 시대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장미혜·송효진·이인선. 2012. “30-40 여성의 생활실태 및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혜경·김영란·최인희. 2011. “100세 시대 투자사회 대비 가족정책 과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영수. 2013. 「은퇴위기의 중년보고서: 준비없는 은퇴는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가」, 고려원북스.
- 한경혜·이정화. 2013, 「지금 중년을 말할 때: 대한민국 중년을 치밀하게 분석한 보고서」, 교문사.
-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포럼. 2011. “인생 100세 시대 대응 전략”,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 록

1. 설문지
2. 설문 결과표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서울시 4050 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기관 (주)원지코리아컨설팅에서 근무하는 면접원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40~50대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 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조사책임자 원지코리아컨설팅 박시영 (Tel) 02-761-0897

SQ1. 연령1	실례지만, 나이가 올 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 세 (40세~59세 여성만 조사 진행. 남성 및 여성 타연령대는 면접중단)																														
SQ2. 연령2	(연령 쿼터 체크) ① 40~44세 ② 45~49세 ③ 50~54세 ④ 55~59세																														
SQ3. 지역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33%;">① 도심권 - 1) 종로구</td> <td style="width: 33%;">2) 중구</td> <td style="width: 33%;">3) 용산구</td> </tr> <tr> <td>② 동북권 - 4) 성동구</td> <td>5) 광진구</td> <td>6) 동대문구</td> </tr> <tr> <td></td> <td>7) 중랑구</td> <td>8) 성북구</td> </tr> <tr> <td></td> <td>10) 도봉구</td> <td>11) 노원구</td> </tr> <tr> <td>③ 서북권 - 12) 은평구</td> <td>13) 서대문구</td> <td>14) 마포구</td> </tr> <tr> <td>④ 서남권 - 15) 양천구</td> <td>16) 강서구</td> <td>17) 구로구</td> </tr> <tr> <td></td> <td>18) 금천구</td> <td>19) 영등포구</td> </tr> <tr> <td></td> <td>21) 관악구</td> <td>20) 동작구</td> </tr> <tr> <td>⑤ 동남권 - 22) 서초구</td> <td>23) 강남구</td> <td>24) 송파구</td> </tr> <tr> <td></td> <td>25) 강동구</td> <td></td> </tr> </table>	① 도심권 -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② 동북권 -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③ 서북권 -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④ 서남권 -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1) 관악구	20) 동작구	⑤ 동남권 -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① 도심권 -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② 동북권 -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③ 서북권 -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④ 서남권 -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1) 관악구	20) 동작구																													
⑤ 동남권 -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 서울시 4050 여성 생활실태 】

1. 선생님께서는 하루 일과 중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① 가사 노동	② 소득 활동	
③ 자녀 돌봄	④ 부모 돌봄	⑤ 여가 활동

2. 현재 선생님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쪽이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생계비 부족 문제	② 본인 혹은 배우자의 고용 불안 문제
③ 자녀 양육 문제	④ 부모 부양 문제
⑤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문제	⑥ 내집 마련 문제
⑦ 가계 부채 문제	⑧ 남편, 자녀, 시댁 등과의 불화 문제
⑨ 노후 준비 문제	

3. 선생님이 부모 부양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생활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	② 간병, 병원 동행 등 간병 지원
③ 청소, 식사준비 등 가사 지원	④ 고민상담, 지지 등 정서적 지원
⑤ 부모 안 계셔서 해당사항 없음	⑥ 기타 ()

4. 자녀 양육 측면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등록금 지원	② 사교육비 부담
③ 용돈, 생활비 지원	④ 자녀 결혼준비 지원
⑤ 고민상담, 지지 등 정서적 지원	⑥ 기타 (_____)

5. 선생님은 40세 이후에 직장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직장을 구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가장 컸습니까?

① 임금이나 시간대가 안 맞아서	② 일자리 정보가 부족해서
③ 여자라서	④ 나이가 많아서

- ⑤ 학력이 안 맞아서
- ⑥ 돌볼 가족이 있어서
- ⑦ 본인의 능력부족으로
- ⑧ 구해본 적이 없다
- ⑨ 기타 (_____)

【 시정 인식 관련 】

6. 선생님께서는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시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잘하고 있다
 -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
 - ③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 ④ 매우 잘못하고 있다
7. 현 시장 취임 후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사업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서민가정과 취약계층 위한 복지 강화
 - ② 서울시 채무감축
 - ③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 ④ 임대주택 보급 확대
 - ⑤ 뉴타운/재개발 문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통해 해결
 - ⑥ 심야버스 운행, 점심시간 주차단속 자제 등 생활불편요소 해소
 - ⑦ 낭비성 보도블럭 교체 금지 등 예산 절감
 - ⑧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립대 반값등록금,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 공약실천
 - ⑨ 기타 ()
8. 서울시가 앞으로 더 집중해주길 바라는 사업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서민가정과 취약계층 위한 복지 강화
 - ② 일자리 창출
 - ③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 ④ 임대주택 보급 확대
 - ⑤ 치안, 재난 등 도시안전 강화
 - ⑥ 문화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
 - ⑦ 심야버스 운행, 점심시간 주차단속 자제 등 생활불편 해소
 - ⑧ 보행자 중심의 보행친화도시 추진과 대중교통 활성화
 - ⑨ 기타 ()

부록 2 설문 결과표

표 부록-1 주요 하루 일과

구분	사례수	가사 노동	소득 활동	자녀 돌봄	부모 돌봄	여가 활동	잘모름	계
전체	(400)	43.5	35.5	9.5	.5	10.8	.3	100.0
연령								
40세-44세	(108)	31.5	39.8	20.4	.0	8.3	.0	100.0
45세-49세	(97)	34.0	51.5	8.2	.0	6.2	.0	100.0
50세-54세	(104)	52.9	36.5	1.9	.0	7.7	1.0	100.0
55세-59세	(91)	57.1	12.1	6.6	2.2	22.0	.0	100.0
경제활동형태별								
경제활동_정기적	(98)	.0	100.0	.0	.0	.0	.0	100.0
경제활동_파트타임	(110)	35.5	40.0	13.6	.9	10.0	.0	100.0
비경제활동	(192)	70.3	.0	12.0	.5	16.7	.5	100.0
혼인상태별								
기혼_유배우자	(335)	46.3	31.9	10.4	.3	11.0	.0	100.0
기혼_무배우자	(31)	45.2	38.7	6.5	3.2	6.5	.0	100.0
미혼	(34)	14.7	67.6	2.9	.0	11.8	2.9	100.0
소득별								
300만원대 이하	(155)	43.9	34.8	9.7	.6	11.0	.0	100.0
400-500만원대	(133)	42.9	35.3	12.8	.8	7.5	.8	100.0
600만원대 이상	(98)	40.8	39.8	5.1	.0	14.3	.0	100.0
무응답	(14)	64.3	14.3	7.1	.0	14.3	.0	100.0
학력별								
중졸이하	(29)	48.3	24.1	10.3	.0	17.2	.0	100.0
고졸	(106)	49.1	28.3	10.4	.9	11.3	.0	100.0
대졸이상	(265)	40.8	39.6	9.1	.4	9.8	.4	100.0

【 표 부록-2 】 개인적 어려움 (1순위)

구분	사례 수	생계 비 부족 문제	본인 혹은 배우자의 고용 불안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부모 부양 문제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문제	내집 마련 문제	가계 부채 문제	남편 자녀 시댁 등과의 불화 문제	노후 준비 문제	잘 모름	계
전체	(400)	15.8	9.0	17.0	5.0	15.0	7.0	10.8	1.8	15.8	3.0	100.0
연령												
40세-44세	(108)	18.5	9.3	33.3	3.7	7.4	6.5	11.1	2.8	6.5	.9	100.0
45세-49세	(97)	20.6	6.2	23.7	5.2	10.3	8.2	8.2	.0	15.5	1.0	100.0
50세-54세	(104)	12.5	13.5	5.8	6.7	18.3	5.8	10.6	1.0	23.1	2.9	100.0
55세-59세	(91)	11.0	6.6	3.3	4.4	25.3	7.7	13.2	2.2	18.7	7.7	100.0
경제활동형태별												
경제활동_정기적	(98)	17.3	12.2	21.4	3.1	10.2	11.2	9.2	.0	15.3	.0	100.0
경제활동_파트타임	(110)	17.3	6.4	20.0	5.5	15.5	3.6	11.8	2.7	13.6	3.6	100.0
비경제활동	(192)	14.1	8.9	13.0	5.7	17.2	6.8	10.9	2.1	17.2	4.2	100.0
혼인상태별												
기혼_유배우자	(335)	13.1	9.6	19.1	4.5	14.6	4.8	11.6	1.8	17.6	3.3	100.0
기혼_무배우자	(31)	25.8	3.2	12.9	6.5	12.9	22.6	6.5	3.2	6.5	.0	100.0
미혼	(34)	32.4	8.8	.0	8.8	20.6	14.7	5.9	.0	5.9	2.9	100.0
소득별												
300만원대 이하	(155)	26.5	8.4	10.3	3.9	11.6	10.3	12.3	1.9	12.3	2.6	100.0
400-500만원대	(133)	13.5	8.3	25.6	7.5	15.8	7.5	6.0	3.0	19.5	2.3	100.0
600만원대 이상	(98)	2.0	10.2	17.3	3.1	19.4	2.0	16.3	.0	26.5	3.1	100.0
무응답	(14)	14.3	14.3	7.1	7.1	14.3	.0	.0	.0	28.6	14.3	100.0
학력별												
중졸이하	(29)	24.1	13.8	3.4	3.4	17.2	10.3	3.4	.0	20.7	3.4	100.0
고졸	(106)	19.8	5.7	18.9	2.8	10.4	9.4	11.3	3.8	15.1	2.8	100.0
대졸이상	(265)	13.2	9.8	17.7	6.0	16.6	5.7	11.3	1.1	15.5	3.0	100.0

【 표 부록-3 】 개인적 어려움 (1+2순위)

구분	사례수	생계비 부족 문제	본인 혹은 배우자의 고용 불안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부모 부양 문제	본인 및 가족의 건강 문제	내집 마련 문제	가계 부채 문제	남편 자녀 시댁 등과의 불화 문제	노후 준비 문제	잘 모름
전체	(400)	24.0	19.0	30.0	8.8	27.5	12.5	17.5	4.3	43.5	3.0
연령											
40세-44세	(108)	36.9	19.4	44.4	9.3	20.4	15.7	17.6	5.6	34.3	.9
45세-49세	(97)	26.8	15.5	43.3	9.3	20.6	14.4	17.5	3.1	43.3	1.0
50세-54세	(104)	20.2	26.0	20.2	8.7	33.7	9.6	16.3	3.8	46.2	2.9
55세-59세	(91)	22.0	14.3	9.9	7.7	36.3	9.9	18.7	4.4	51.6	7.7
경제활동형태별											
경제활동_정기직	(98)	25.5	19.4	31.6	8.2	26.5	19.4	21.4	3.1	44.9	.0
경제활동_파트타임	(110)	25.5	20.0	35.5	8.2	28.2	7.3	15.5	5.5	38.2	3.6
비경제활동	(192)	22.4	18.2	26.0	9.4	27.6	12.0	16.7	4.2	45.8	4.2
혼인상태별											
기혼_유배우자	(335)	21.5	20.6	33.4	8.1	26.6	10.7	17.9	4.8	42.7	3.3
기혼_무배우자	(31)	32.3	6.5	25.8	9.7	32.3	25.8	12.9	3.2	48.4	.0
미혼	(34)	41.2	14.7	.0	14.7	32.4	17.6	17.6	.0	47.1	2.9
소득별											
300만원대 이하	(155)	38.7	17.4	29.0	6.5	22.6	16.1	19.4	3.9	34.2	2.6
400-500만원대	(133)	19.5	22.6	34.6	10.5	24.8	13.5	13.5	6.8	45.1	2.3
600만원대 이상	(98)	6.1	17.3	27.6	9.2	38.8	7.1	22.4	2.0	55.1	3.1
무응답	(14)	28.6	14.3	14.3	14.3	28.6	.0	.0	.0	50.0	14.3
학력별											
중졸이하	(29)	44.8	17.2	17.2	3.4	27.6	10.3	10.3	3.4	41.4	3.4
고졸	(106)	30.2	14.2	29.2	4.7	22.6	13.2	18.9	7.5	48.1	2.8
대졸이상	(265)	19.2	21.1	31.7	10.9	29.4	12.5	17.7	3.0	41.9	3.0

【표 부록-4】 가장 부담이 되는 자녀 양육 측면

구분	사례수	등록금 지원	사교육비 부담	용돈· 생활비 지원	자녀 결혼 준비 지원	고민 상담/ 지지 등 정서적 지원	기타	잘 모름	계
전체	(400)	15.5	23.5	7.0	23.5	12.0	1.5	17.0	100.0
연령									
40세-44세	(108)	7.4	47.2	1.9	.0	13.9	.9	28.7	100.0
45세-49세	(97)	24.7	29.9	5.2	16.5	13.4	.0	10.3	100.0
50세-54세	(104)	23.1	12.5	7.7	31.7	8.7	2.9	13.5	100.0
55세-59세	(91)	6.6	1.1	14.3	49.5	12.1	2.2	14.3	100.0
권역별									
도심권	(21)	9.5	14.3	.0	23.8	9.5	.0	42.9	100.0
동북권	(128)	14.8	28.9	7.8	23.4	11.7	.0	13.3	100.0
서북권	(46)	13.0	21.7	4.3	21.7	13.0	2.2	23.9	100.0
서남권	(118)	16.1	22.9	8.5	25.4	10.2	2.5	14.4	100.0
동남권	(87)	18.4	19.5	6.9	21.8	14.9	2.3	16.1	100.0
경제활동형태별									
경제활동_정기적	(98)	13.3	24.5	8.2	18.4	12.2	.0	23.5	100.0
경제활동_파트타임	(110)	14.5	32.7	6.4	26.4	7.3	.0	12.7	100.0
비경제활동	(192)	17.2	17.7	6.8	24.5	14.6	3.1	16.1	100.0
혼인상태별									
기혼_유배우자	(335)	17.0	26.9	7.5	25.7	13.7	1.5	7.8	100.0
기혼_무배우자	(31)	16.1	12.9	9.7	25.8	6.5	3.2	25.8	100.0
미혼	(34)	.0	.0	.0	.0	.0	.0	100.0	100.0
소득별									
300만원대 이하	(155)	14.8	21.9	10.3	21.3	7.7	1.3	22.6	100.0
400-500만원대	(133)	17.3	27.8	4.5	21.1	12.8	2.3	14.3	100.0
600만원대 이상	(98)	13.3	21.4	6.1	29.6	18.4	.0	11.2	100.0
무응답	(14)	21.4	14.3	.0	28.6	7.1	7.1	21.4	100.0
학력별									
중졸이하	(29)	17.2	10.3	17.2	34.5	10.3	.0	10.3	100.0
고졸	(106)	18.9	20.8	6.6	32.1	4.7	1.9	15.1	100.0
대졸이상	(265)	14.0	26.0	6.0	18.9	15.1	1.5	18.5	100.0

【표 부록-5】 가장 부담이 되는 부모 부양 측면

구분	사례수	생활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	간병 병원 등 간병 지원	청소 식사 준비 등 가사 지원	고민 상담· 지지 등 정서적 지원	부모 안계서서 해당사항 없음	기타	잘 모름	계
전체	(400)	39.8	22.5	6.5	8.3	18.8	2.0	2.3	100.0
연령									
40세-44세	(108)	51.9	23.1	7.4	7.4	2.8	4.6	2.8	100.0
45세-49세	(97)	49.5	21.6	3.1	14.4	8.2	.0	3.1	100.0
50세-54세	(104)	29.8	26.9	10.6	4.8	26.0	1.0	1.0	100.0
55세-59세	(91)	26.4	17.6	4.4	6.6	40.7	2.2	2.2	100.0
권역별									
도심권	(21)	23.8	28.6	9.5	9.5	28.6	.0	.0	100.0
동북권	(128)	31.3	23.4	2.3	6.3	29.7	2.3	4.7	100.0
서북권	(46)	34.8	17.4	4.3	6.5	23.9	6.5	6.5	100.0
서남권	(118)	50.8	20.3	6.8	10.2	10.2	1.7	.0	100.0
동남권	(87)	43.7	25.3	12.6	9.2	9.2	.0	.0	100.0
경제활동형태별									
경제활동_정기적	(98)	50.0	23.5	10.2	9.2	5.1	2.0	.0	100.0
경제활동_파트타임	(110)	36.4	25.5	2.7	5.5	23.6	1.8	4.5	100.0
비경제활동	(192)	36.5	20.3	6.8	9.4	22.9	2.1	2.1	100.0
혼인상태별									
기혼_유배우자	(335)	39.7	23.0	6.0	8.1	18.5	2.1	2.7	100.0
기혼_무배우자	(31)	35.5	12.9	3.2	6.5	38.7	3.2	.0	100.0
미혼	(34)	44.1	26.5	14.7	11.8	2.9	.0	.0	100.0
소득별									
300만원대 이하	(155)	43.2	20.0	2.6	6.5	25.2	.6	1.9	100.0
400-500만원대	(133)	43.6	19.5	9.0	7.5	15.8	3.0	1.5	100.0
600만원대 이상	(98)	31.6	29.6	10.2	12.2	11.2	1.0	4.1	100.0
무응답	(14)	21.4	28.6	.0	7.1	28.6	14.3	.0	100.0
학력별									
중졸이하	(29)	17.2	13.8	.0	3.4	65.5	.0	.0	100.0
고졸	(106)	49.1	18.9	1.9	1.9	24.5	2.8	.9	100.0
대졸이상	(265)	38.5	24.9	9.1	11.3	11.3	1.9	3.0	100.0

【 표 부록-6 】 40세 이후 구직활동시 어려움

구분	사례 수	임금·시간대 안맞아서	일자리 정보 부족해서	여자라서	나이 많아서	학력 안맞아서	돌볼 가족 있어서	본인 능력 부족으로	구해본 적이 없다	기타	잘 모름	계
전체	(400)	17.5	6.8	2.5	23.3	2.3	3.3	4.5	37.0	1.5	1.5	100.0
연령												
40세-44세	(108)	21.3	3.7	1.9	21.3	2.8	2.8	2.8	41.7	.9	.9	100.0
45세-49세	(97)	19.6	8.2	2.1	32.0	1.0	2.1	6.2	26.8	.0	2.1	100.0
50세-54세	(104)	15.4	8.7	2.9	22.1	1.9	4.8	6.7	33.7	2.9	1.0	100.0
55세-59세	(91)	13.2	6.6	3.3	17.6	3.3	3.3	2.2	46.2	2.2	2.2	100.0
권역별												
도심권	(21)	9.5	9.5	.0	19.0	.0	4.8	.0	52.4	.0	4.8	100.0
동북권	(128)	15.6	3.1	.8	17.2	2.3	3.1	3.9	49.2	1.6	3.1	100.0
서북권	(46)	10.9	4.3	.0	28.3	2.2	4.3	2.2	43.5	2.2	2.2	100.0
서남권	(118)	25.4	10.2	1.7	29.7	1.7	3.4	5.9	19.5	2.5	.0	100.0
동남권	(87)	14.9	8.0	8.0	21.8	3.4	2.3	5.7	35.6	.0	.0	100.0
경제활동형태별												
경제활동_정기적	(98)	13.3	11.2	5.1	36.7	2.0	2.0	4.1	21.4	3.1	1.0	100.0
경제활동_파트타임	(110)	26.4	4.5	1.8	20.0	3.6	1.8	5.5	32.7	.0	3.6	100.0
비경제활동	(192)	14.6	5.7	1.6	18.2	1.6	4.7	4.2	47.4	1.6	.5	100.0
혼인상태별												
기혼_유배우자	(335)	18.5	6.9	3.0	20.6	1.5	3.3	4.8	38.5	1.2	1.8	100.0
기혼_무배우자	(31)	9.7	12.9	.0	32.3	9.7	3.2	3.2	25.8	3.2	.0	100.0
미혼	(34)	14.7	.0	.0	41.2	2.9	2.9	2.9	32.4	2.9	.0	100.0
소득별												
300만원대 이하	(155)	16.1	7.7	.0	28.4	3.9	1.9	4.5	35.5	.6	1.3	100.0
400-500만원대	(133)	21.1	6.0	3.0	17.3	2.3	4.5	6.8	36.8	2.3	.0	100.0
600원대 이상	(98)	15.3	6.1	6.1	24.5	.0	4.1	2.0	36.7	2.0	3.1	100.0
무응답	(14)	14.3	7.1	.0	14.3	.0	.0	.0	57.1	.0	7.1	100.0
학력별												
중졸이하	(29)	10.3	6.9	.0	10.3	6.9	3.4	6.9	51.7	3.4	.0	100.0
고졸	(106)	19.8	8.5	.9	20.8	4.7	.9	2.8	39.6	.9	.9	100.0
대졸이상	(265)	17.4	6.0	3.4	25.7	.8	4.2	4.9	34.3	1.5	1.9	100.0

표 부록-7 | 시정운영 평가

구분	사례수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못 하고 있다	매우 잘못 하고 있다	잘 모름	종합평가			계
							긍정	부정	잘 모름	
전체	(400)	3.3	50.0	36.0	5.5	5.3	53.3	41.5	5.3	100.0
연령										
40세-44세	(108)	4.6	49.1	39.8	4.6	1.9	53.7	44.4	1.9	100.0
45세-49세	(97)	3.1	48.5	37.1	9.3	2.1	51.5	46.4	2.1	100.0
50세-54세	(104)	1.9	53.8	33.7	3.8	6.7	55.8	37.5	6.7	100.0
55세-59세	(91)	3.3	48.4	33.0	4.4	11.0	51.6	37.4	11.0	100.0
권역별										
도심권	(21)	4.8	52.4	28.6	4.8	9.5	57.1	33.3	9.5	100.0
동북권	(128)	2.3	41.4	37.5	7.0	11.7	43.8	44.5	11.7	100.0
서북권	(46)	.0	43.5	41.3	6.5	8.7	43.5	47.8	8.7	100.0
서남권	(118)	5.1	58.5	32.2	4.2	.0	63.6	36.4	.0	100.0
동남권	(87)	3.4	54.0	37.9	4.6	.0	57.5	42.5	.0	100.0
경제활동형태별										
경제활동_정기적	(98)	5.1	53.1	34.7	6.1	1.0	58.2	40.8	1.0	100.0
경제활동_파트타임	(110)	.9	52.7	31.8	6.4	8.2	53.6	38.2	8.2	100.0
비경제활동	(192)	3.6	46.9	39.1	4.7	5.7	50.5	43.8	5.7	100.0
혼인상태별										
기혼_유배우자	(335)	3.0	50.7	36.1	5.1	5.1	53.7	41.2	5.1	100.0
기혼_무배우자	(31)	.0	45.2	35.5	12.9	6.5	45.2	48.4	6.5	100.0
미혼	(34)	8.8	47.1	35.1	2.9	5.9	55.9	38.2	5.9	100.0
소득별										
300만원대 이하	(155)	2.6	47.1	34.8	5.8	9.7	49.7	40.6	9.7	100.0
400-500만원대	(133)	4.5	56.4	32.3	4.5	2.3	60.9	36.8	2.3	100.0
600만원대 이상	(98)	3.1	48.0	41.8	5.1	2.0	51.0	46.9	2.0	100.0
무응답	(14)	.0	35.7	42.9	14.3	7.1	35.7	57.1	7.1	100.0
학력별										
중졸이하	(29)	3.4	44.8	31.0	3.4	17.2	48.3	34.5	17.2	100.0
고졸	(106)	3.8	49.1	34.9	4.7	7.5	52.8	39.6	7.5	100.0
대졸이상	(265)	3.0	50.9	37.0	6.0	3.0	54.0	43.0	3.0	100.0

표 부록-8 가장 잘되고 있는 서울시 사업

구분	사례 수	서민 가정 과 취약 계층 위한 복지 강화	서울 시 채무 감축	전통 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	임대 주택 보급 확대	뉴타운 / 재개발 문제 실태 조사, 주민 의견 수렴 통해 해결	생활 불편 요소 해소	예산 절감	정규직 화/ 반값 등록금 /무상 급식 확대 등 공약 실천	기타	잘 모름	계
전체	(400)	13.5	4.5	13.0	6.0	4.3	24.0	14.8	9.0	3.0	8.0	100.0
연령												
40세-44세	(108)	13.0	5.6	13.0	3.7	6.5	31.5	15.7	7.4	1.9	1.9	100.0
45세-49세	(97)	14.4	6.2	9.3	6.2	2.1	18.6	20.6	13.4	4.1	5.2	100.0
50세-54세	(104)	10.6	2.9	11.5	7.7	3.8	29.8	8.7	8.7	4.8	11.5	100.0
55세-59세	(91)	16.5	3.3	18.7	6.6	4.4	14.3	14.3	6.6	1.1	14.3	100.0
경제활동형태별												
경제활동_정기적	(98)	15.3	6.1	13.3	6.1	9.2	25.5	14.3	7.1	2.0	1.0	100.0
경제활동_파트타임	(110)	14.5	4.5	12.7	7.3	1.8	17.3	16.4	9.1	2.7	13.6	100.0
비경제활동	(192)	12.0	3.6	13.0	5.2	3.1	27.1	14.1	9.9	3.6	8.3	100.0
혼인상태별												
기혼_유배우자	(335)	12.8	4.5	13.7	5.7	3.6	22.4	15.8	9.9	3.6	8.1	100.0
기혼_무배우자	(31)	19.4	3.2	12.9	9.7	.0	29.0	12.9	3.2	.0	9.7	100.0
미혼	(34)	14.7	5.9	5.9	5.9	14.7	35.3	5.9	5.9	.0	5.9	100.0
소득별												
300만원대 이하	(155)	18.1	.6	15.5	5.8	3.2	19.4	13.5	9.0	2.6	12.3	100.0
400-500만원대	(133)	11.3	7.5	10.5	6.8	4.5	27.1	18.8	9.0	2.3	2.3	100.0
600만원대 이상	(98)	11.2	7.1	12.2	6.1	6.1	25.5	12.2	10.2	5.1	4.1	100.0
무응답	(14)	.0	.0	14.3	.0	.0	35.7	7.1	.0	.0	42.9	100.0
학력별												
중졸이하	(29)	24.1	.0	13.8	6.9	3.4	10.3	10.3	.0	.0	31.0	100.0
고졸	(106)	18.9	2.8	18.9	2.8	.9	17.9	17.0	8.5	.9	11.3	100.0
대졸이상	(265)	10.2	5.7	10.6	7.2	5.7	27.9	14.3	10.2	4.2	4.2	100.0

【 표 부록-9 】 향후 더 집중해야 할 사업 분야

구분	사례 수	서민 가정 과 취약 계층 위한 복지 강화	일자 리 창출	전통 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	임대 주택 보급 확대	치안/ 재난 등 도시 안전 강화	문화 시설 등 편의 시설 확충	심야 버스 운행/ 점심 시간 주차 단속 자제 등 생활 불편 해소	보행자 중심의 보행 친화 도시 추진과 대중 교통 활성화	기타	잘 모름	계
전체	(400)	19.5	35.3	2.5	11.3	16.8	5.0	2.5	5.5	1.0	.8	100.0
연령												
40세-44세	(108)	25.9	25.9	.0	13.0	18.5	6.5	1.9	6.5	1.9	.0	100.0
45세-49세	(97)	20.6	36.1	4.1	10.3	18.6	4.1	3.1	1.0	1.0	1.0	100.0
50세-54세	(104)	15.4	37.5	1.0	10.6	17.3	4.8	3.8	8.7	.0	1.0	100.0
55세-59세	(91)	15.4	42.9	5.5	11.0	12.1	4.4	1.1	5.5	1.1	1.1	100.0
경제활동형태별												
경제활동_정기직	(98)	29.6	19.4	4.1	17.3	21.4	1.0	4.1	2.0	1.0	.0	100.0
경제활동_파트타임	(110)	20.0	45.5	.9	9.1	15.5	.9	.9	4.5	.9	1.8	100.0
비경제활동	(192)	14.1	37.5	2.6	9.4	15.1	9.4	2.6	7.8	1.0	.5	100.0
혼인상태별												
기혼_유배우자	(335)	20.0	37.6	2.7	8.1	16.7	5.4	2.7	5.1	1.2	.6	100.0
기혼_무배우자	(31)	22.6	29.0	.0	32.3	6.5	3.2	.0	3.2	.0	3.2	100.0
미혼	(34)	11.8	17.6	2.9	23.5	26.5	2.9	2.9	11.8	.0	.0	100.0
소득별												
300만원대 이하	(155)	25.2	32.9	.6	16.8	12.3	3.2	1.3	6.5	.0	1.3	100.0
400-500만원대	(133)	17.3	42.9	2.3	7.5	18.8	3.8	1.5	4.5	1.5	.0	100.0
600만원대 이상	(98)	12.2	27.6	5.1	8.2	22.4	10.2	6.1	6.1	2.0	.0	100.0
무응답	(14)	28.6	42.9	7.1	7.1	7.1	.0	.0	.0	.0	7.1	100.0
학력별												
중졸이하	(29)	27.6	48.3	3.4	6.9	6.9	3.4	.0	.0	.0	3.4	100.0
고졸	(106)	27.4	32.1	3.8	16.0	11.3	2.8	2.8	1.9	.0	1.9	100.0
대졸이상	(265)	15.5	35.1	1.9	9.8	20.0	6.0	2.6	7.5	1.5	.0	100.0

【 표 부록-10 】 서울시 추진 여성정책 중 기억나는 정책분야

구분	사례수	보육 분야	안전 분야	여성 정규직 전환/ 일자리 지원 분야	직장 여성 지원 분야	건강 분야	특별히 없다	잘모름	계
전체	(400)	13.8	33.5	19.8	5.8	8.5	7.8	11.0	100.0
연령									
40세-44세	(108)	17.6	39.8	21.3	1.9	2.8	4.6	12.0	100.0
45세-49세	(97)	10.3	26.8	23.7	11.3	10.3	9.3	8.2	100.0
50세-54세	(104)	9.6	39.4	19.2	6.7	9.6	7.7	7.7	100.0
55세-59세	(91)	17.6	26.4	14.3	3.3	12.1	9.9	16.5	100.0
경제활동형태별									
경제활동_정기적	(98)	12.2	36.7	24.5	6.1	5.1	1.0	14.3	100.0
경제활동_파트타임	(110)	17.3	29.1	19.1	7.3	8.2	13.6	5.5	100.0
비경제활동	(192)	12.5	34.4	17.7	4.7	10.4	7.8	12.5	100.0
혼인상태별									
기혼_유배우자	(335)	14.0	33.4	20.3	5.4	8.7	8.4	9.9	100.0
기혼_무배우자	(31)	12.9	38.7	12.9	12.9	6.5	3.2	12.9	100.0
미혼	(34)	11.8	29.4	20.6	2.9	8.8	5.9	20.6	100.0
소득별									
300만원대 이하	(155)	17.4	30.3	17.4	5.2	10.3	7.1	12.3	100.0
400-500만원대	(133)	13.5	36.1	20.3	6.8	6.8	6.0	9.2	100.0
600만원대 이상	(98)	6.1	38.8	24.5	6.1	8.2	7.1	9.2	100.0
무응답	(14)	28.6	7.1	7.1	.0	7.1	35.7	14.3	100.0
학력별									
중졸이하	(29)	24.1	6.9	13.8	10.3	17.2	20.7	6.9	100.0
고졸	(106)	15.1	32.1	17.9	5.7	12.3	8.5	8.5	100.0
대졸이상	(265)	12.1	37.0	21.1	5.3	6.0	6.0	12.5	100.0

【 표 부록-11 】 관심이 필요한 여성정책 분야 (1순위)

구분	사례수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보육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개선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및 가족 양립 지원	위험/ 폭력으 로부터 여성 안전망 구축	여성 건강 증진 지원	가족 관계 증진 지원	여성 노후 지원	사회 참여 및 여가 지원	잘 모름	계
전체	(400)	30.5	13.0	12.0	14.8	5.8	1.8	14.5	6.8	1.0	100.0
연령											
40세-44세	(108)	36.1	18.5	8.3	18.5	3.7	.9	5.6	8.3	.0	100.0
45세-49세	(97)	28.9	11.3	16.5	15.5	4.1	3.1	13.4	7.2	.0	100.0
50세-54세	(104)	29.8	9.6	8.7	18.3	6.7	1.9	14.4	8.7	1.9	100.0
55세-59세	(91)	26.4	12.1	15.4	5.5	8.8	1.1	26.4	2.2	2.2	100.0
경제활동형태별											
경제활동_정기적	(98)	27.6	17.3	11.2	21.4	2.0	2.0	13.3	5.1	.0	100.0
경제활동_파트타임	(110)	35.5	10.9	10.9	12.7	4.5	2.7	15.5	6.4	.9	100.0
비경제활동	(192)	29.2	12.0	13.0	12.5	8.3	1.0	14.6	7.8	1.6	100.0
혼인상태별											
기혼_유배우자	(335)	30.1	13.7	12.8	13.7	6.0	2.1	13.7	6.9	.9	100.0
기혼_무배우자	(31)	35.5	9.7	9.7	12.9	6.5	.0	16.1	9.7	.0	100.0
미혼	(34)	29.4	8.8	5.9	26.5	2.9	.0	20.6	2.9	2.9	100.0
소득별											
300만원대 이하	(155)	34.8	11.0	10.3	11.6	9.0	3.9	12.9	5.8	.6	100.0
400-500만원대	(133)	32.3	14.3	13.5	16.5	1.5	.0	15.8	5.3	.8	100.0
600만원대 이상	(98)	21.4	16.3	13.3	19.4	7.1	1.0	13.3	8.2	.0	100.0
무응답	(14)	2.6	.0	7.1	.0	.0	.0	28.6	21.4	14.3	100.0
학력별											
중졸이하	(29)	37.9	10.3	.0	6.9	17.2	3.4	20.7	.0	3.4	100.0
고졸	(106)	30.2	15.1	9.4	13.2	4.7	1.9	13.2	10.4	1.9	100.0
대졸이상	(265)	29.8	12.5	14.3	16.2	4.9	1.5	14.3	6.0	.4	100.0

【 표 부록-12 】 관심이 필요한 여성정책 분야 (1순위+2순위)

구분	사례수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보육 및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개선	여성 경력 단절 예방 및 가족 양립 지원	위험/폭 력으로 부터 여성 안전망 구축	여성 건강 증진 지원	가족 관계 증진 지원	여성 노후 지원	사회 참여 및 여가 지원	잘 모름
전체	(400)	49.0	24.3	25.0	27.3	12.3	5.5	26.5	19.3	1.0
연령										
40세-44세	(108)	53.7	28.7	29.6	29.6	7.4	4.6	15.7	24.1	.0
45세-49세	(97)	50.5	21.6	29.9	30.9	9.3	5.2	24.7	22.7	.0
50세-54세	(104)	48.1	19.2	20.2	27.9	14.4	8.7	27.9	19.2	1.9
55세-59세	(91)	42.9	27.5	19.8	19.8	18.7	3.3	39.6	9.9	2.2
경제활동형태별										
경제활동_정기적	(98)	47.9	22.4	31.6	40.8	6.1	8.2	25.5	16.3	.0
경제활동_파트타임	(110)	52.7	22.7	20.9	20.9	13.6	5.5	30.0	18.2	.9
비경제활동	(192)	47.9	26.0	24.0	24.0	14.6	4.2	25.0	21.4	1.6
혼인상태별										
기혼_유배우자	(335)	48.1	26.3	25.4	25.7	13.7	6.0	25.4	17.9	.9
기혼_무배우자	(31)	54.8	9.7	29.0	19.4	6.5	3.2	38.7	29.0	.0
미혼	(34)	52.9	17.6	17.6	50.0	2.9	2.9	26.5	23.5	2.9
소득별										
300만원대 이하	(155)	56.1	20.0	21.3	25.8	14.8	7.7	25.2	16.1	.6
400-500만원대	(133)	46.6	27.1	27.8	27.8	6.8	3.0	30.1	23.3	.8
600만원대 이상	(98)	40.8	30.6	28.6	31.6	16.3	6.1	21.4	17.3	.0
무응답	(14)	50.0	.0	14.3	7.1	7.1	.0	42.9	28.6	14.3
학력별										
중졸이하	(29)	48.3	27.6	3.4	10.3	24.1	10.3	41.4	.0	3.4
고졸	(106)	54.7	18.9	17.0	22.6	11.3	8.5	29.2	22.6	1.9
대졸이상	(265)	46.8	26.0	30.6	30.9	11.3	3.8	23.8	20.0	.4

【 표 부록-13 】 관심이 필요한 여성안정정책 분야 (1순위)

구분	사례수	골목길 CCCTV 설치 확대	여성 안심 귀가 스카 우트 제도 /안심 택배 확대	지하 주차장/ 후미진 주택가 에 밝은 조명등 설치 확대	유형 업소 및 불법 음란물/ 음란 사이트 단속 강화	성폭력/ 가족 폭력 피해 여성 보호 및 지원 강화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잘모름	계
전체	(400)	26.3	9.8	20.0	12.0	22.0	8.5	1.5	100.0
연령									
40세-44세	(108)	20.4	7.4	25.9	10.2	32.4	3.7	.0	100.0
45세-49세	(97)	23.7	8.2	15.5	16.5	18.6	16.5	1.0	100.0
50세-54세	(104)	31.6	11.5	19.2	7.7	23.1	4.8	1.9	100.0
55세-59세	(91)	29.7	12.1	18.7	14.3	12.1	9.9	3.3	100.0
경제활동형태별									
경제활동_정기적	(98)	19.4	16.3	23.5	13.3	21.4	5.1	1.0	100.0
경제활동_파트타임	(110)	25.5	10.9	20.0	10.0	18.2	13.6	1.8	100.0
비경제활동	(192)	30.2	5.7	18.2	12.5	24.5	7.3	1.6	100.0
혼인상태별									
기혼_유배우자	(335)	25.7	9.9	18.5	13.7	20.9	9.9	1.5	100.0
기혼_무배우자	(31)	19.4	12.9	22.6	6.5	32.3	3.2	3.2	100.0
미혼	(34)	38.2	5.9	32.4	.0	23.5	.0	.0	100.0
소득별									
300만원대 이하	(155)	23.2	9.0	21.3	9.7	25.8	9.7	1.3	100.0
400-500만원대	(133)	30.7	15.0	14.3	11.3	21.1	7.5	.0	100.0
600만원대 이상	(98)	23.5	5.1	24.5	18.4	20.4	8.2	.0	100.0
무응답	(14)	35.7	.0	28.6	.0	.0	7.1	28.6	100.0
학력별									
중졸이하	(29)	48.3	17.2	10.3	3.4	10.3	6.9	3.4	100.0
고졸	(106)	25.5	7.5	21.7	11.3	22.6	7.5	3.8	100.0
대졸이상	(265)	24.2	9.8	20.4	13.2	23.0	9.1	.4	100.0

【 표 부록-14 】 현 시장의 여성정책 관심도

구분	사례수	다소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이전과 비슷하다	오히려 관심이 줄어든 것 같다	잘모름	계
전체	(400)	35.3	31.0	1.0	23.8	100.0
연령						
40세-44세	(108)	39.8	33.3	5.6	21.3	100.0
45세-49세	(97)	39.2	28.9	8.2	23.7	100.0
50세-54세	(104)	37.5	31.7	9.6	21.2	100.0
55세-59세	(91)	23.1	29.7	17.6	29.7	100.0
권역별						
도심권	(21)	42.9	38.1	4.8	14.3	
동북권	(128)	34.4	23.4	13.3	28.9	100.0
서북권	(46)	37.0	26.1	10.9	26.1	100.0
서남권	(118)	35.6	29.8	5.9	18.6	100.0
동남권	(87)	33.3	31.0	11.5	24.1	100.0
경제활동형태별						
경제활동_정기적	(98)	41.8	34.7	8.2	15.3	100.0
경제활동_파트타임	(110)	36.4	29.1	8.2	26.4	100.0
비경제활동	(192)	31.3	30.2	12.0	26.6	100.0
혼인상태별						
기혼_유배우자	(335)	36.1	29.6	10.4	23.9	100.0
기혼_무배우자	(31)	29.0	35.5	12.9	22.6	100.0
미혼	(34)	32.4	41.2	2.9	23.5	100.0
소득별						
300만원대 이하	(155)	34.8	31.9	11.0	23.2	100.0
400-500만원대	(133)	39.1	27.1	12.0	21.8	100.0
600만원대 이상	(98)	32.7	37.8	5.1	24.5	100.0
무응답	(14)	21.4	21.4	14.3	42.9	100.0
학력별						
중졸이하	(29)	31.0	24.1	17.2	27.6	100.0
고졸	(106)	34.9	22.6	14.2	28.3	100.0
대졸이상	(265)	35.8	35.1	7.5	21.5	100.0

2013 이슈분석-02

서울시 4050 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발행인 이숙진
연구자 변은지
발행일 2013년 12월
인쇄처 (사) 장애인기업생산품판매지원협회
발간등록번호 51-B552561-000017-01
발행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 소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전 화 02-810-5101(대)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함께해요 청렴실천, 신뢰해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www.seoulwomen.or.kr

